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03호 2015-1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아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지예 박세영 배승천 정민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승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03 투쟁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 07 준혁, 그를 잊지 말아요
- 08 **[형님 한 말씀]** 한 해를 보내면서
- 09 카페 별꼴의 지난 일 년
- 12 인강원과 함께한 2014년을 돌아보며
- 15 해외여행 자주 가는 '자산가' 수급자, 나?
- 18 기초법 개정, 가난한 이들의 네버엔딩 스토리
- 23 **[장판 핫이슈]**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 27 노란들판의 요한, 그를 알려주마
- 30 강통이와 함께한 자전거 여행
- 34 **[노들아 안녕]** 노들야학 조스
- 36 **[교단 일기]** 천천히 즐겁게 함께!
- 38 급식은 힘ियो 기대요 기쁨이어라~
- 40 명학 자립했습니다
- 41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부양의무제 폐지가 탈시설·자립생활의 지름길!
- 42 장애인에게 승강기가 필요한 이유
- 44 팽목항을 다녀왔습니다

- 45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추신에 추신을 달다
- 55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추(醜)란 무엇일까?
- 57 나의 장애와 마주하다
- 60 우리들의 러브~ 러브!
- 62 「할머니의 꿈」 촬영 노트

- 68 부릉부릉 차차차 7박 8일 이야기
- 70 내가 만난 진심들
- 73 **[노들책꽂이]** 『살아남은 아이』
- 75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단풍 님
- 79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을 여는 창

“우리는 서로에게 왜 숲이 아닌가 / 무심하게 지나쳐온 너의 노래” 최고은의 노래 '봄'에 나오는 노랫말입니다. 2013년 겨울을 앞두고 준혁 씨가 혼자 앓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이 노래가 계속 맴돌았었습니다. 노래는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그렇게 무심하게 1년을 보내고 다시 이 노래를 듣습니다.

2014년 마지막 날, 음성 꽃동네에서 살다 나온 최종훈 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귀병으로 뇌졸중을 앓은 뒤 약 9년간 꽃동네에서 지내다 2010년부터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몸이 자주 아팠고, 병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앓기만 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그가 시설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잠시라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다독여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이 되고 며칠 뒤 야학 사람들은 가평 꽃동네에 있는 선동이형을 만나고 왔습니다. 선동이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학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쇠약해졌고 그러다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다시 만난 선동이형은 수동휠체어에 온 몸을 기댄 채로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숲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매일같이 낙산공원을 산책하며 공원에 뿌리박고 사는 나무들을 봅니다. 봄에 싹 틔우고 여름에 무성히 잎을 가꾸고 가을이 되니 잎을 떨구고 지금은 마른 가지로 겨울을 보냅니다. 이제 봄이 오면 이 나무들은 다시 싹을 틔우고 잎을 가꾸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들을 맞이하며 지금처럼 살아가겠지요? 순환하는 나무의 삶, 그런 나무들로 가득한 숲. 이 반복과 순환의 시간을 버티려면 우리는 지금 가장 행복해야겠지요.

투쟁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노들야학 민구



요즘은
민주노총도
이렇게
안 싸워요

경찰조사를 받다보면 짜증
이 확 솟구쳐 오르곤 한다. 경
찰의 고압적인 자세, 심드렁
한 말투, 조롱하는 듯한 눈빛,
'죄 지은 사람'인양 대하는 태

도, '난 네가 거짓말 하는 거 다 알아'라는 표정, 바
쁜데 경찰서 들락날락해야 하는 상황. 이 모든 게
경찰조사가 달갑지 않은 이유다.

한 장애인운동 활동가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들었
던 말이 있다. “요즘은 민주노총도 이렇게 안 싸워
요.” 과장된 말임에 틀림없지만, 장애인운동을 하다
보면 격하게 싸워야 할 때가 많은 건 사실이다. 장
애운동은 왜 이렇게 격하게 싸울 수밖에 없을까?

농성
867일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이
86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농
성을 시작한 지 2년하고도 넉
달이 지났다. 2012년 8월 21

일,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 이곳엔 누구의 사진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9개의 영정 사진이 농성장
한 편에 자리를 잡고 있다. 농성장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꼬마아이가 엄
마에게 묻는다. “엄마, 여기 죽은 사람 있는 거야?
뭘 땀에 죽었어?” 영정 사진 속 지훈이 나이쯤 됐
을까. 말 없는 엄마를 대신해 마음속으로 대답해
준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나라에서 돌
봐주지 않아서 그래.”



나라에서
돌봐주지 않아
죽어간 사람들

2012년 10월 26일: 활동 보조인이 집으로 돌아간 밤중에 화재가 발생한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 됐지만, 스틱을 물고 119에 전화를 걸어 직접 구조를 요청했던 김주영 씨는 혼자 휠체어에 옮겨 앉지 못해 변을 당한다.

2013년 7월 3일: 뇌전증을 가진 박진영 씨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았고 3급에서 4급으로 한차례 등급이 하락되었다가, 2013년 5월에는 다시 ‘등급 외’ 판정을 받는다. 실제 장애가 있고 십 수 년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그는 하루아침에 근로능력을 가진 비장애인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한다. 결국 진영 씨는 “억울하고 불안하다.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 4월 17일: 25세에 장애를 갖게 된 후 20년이 넘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았던 송국현 씨는 2013년 10월 시설에서 나와 서울 성동구의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했다. 심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도 어렵고, 혼자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장애등급 3급인 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국현 씨는 2014년 4월 10일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방문해 장애등급 이의신청 및 긴급지원신청을 하려 했으나 신청도 해보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후인 4월 13일, 방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결국 세상을 등졌다. 그는 국가의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이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인권운동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설이나
감옥이나

격하게 싸우다 보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벌금이 떨어지거나 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장애인활동가는 이렇게 대답한다. “시설이나 감옥이나.” 싸우다 감옥 가나 시설에 갇혀 지내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오십보백보, 피장파장, 거기서 거기다.

비장애인
활동가
인터뷰

1) 조*랑 활동가의 유치장 감금기

▶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 대해 얘기해 줘.

- 탈시설 투쟁과 관련해 여러 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지. 그런데 자꾸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다시 오라는 거야. 그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서 못 간 게 있었어. 그게 한 2~3년 전인데, 하루는 종로경찰서에서 정보과 형사가 여경들을 대동하고 노들야학으로 날 잡으러 온 거야. 난 회의실에 숨어있었지. 야학에 있는 상근자들이 경찰을 내쫓았는데 그 정보과 형사가 나가면서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러면서 조*랑 씨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언젠가 잡아갈 거라고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 거야.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수배를 때린 거지. 이번엔 성북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아이고 조*랑 씨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래요~ 얼른 조사 받고 끝냅시다.” 거기 아저씨 서글서글하더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하더니 내 손을 잡고 차에 태우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조*랑 씨 체포되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난 내 발로 조사 받으러 왔는데 당황했지. 날 차에 태우더니 종로경찰서로 가더라고. 종로경찰서에 가니까 그놈이 있는 거야. 날 찾고 말했었던 그 놈. “어떻게 오셨어요?”하면서 계속 비아냥대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못 나간다는 거야. 유치장

에서 자야한대. 난 조사 받고 나갈 생각으로 친구랑 저녁 약속도 했는데. 그래서 야학에 전화를 했지.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지. 유치장에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교장샘이 은* 언니랑 왔지. 교장샘이 경찰들한테도 짬뽕 시켜줬어. 조사실에서 교장샘이랑 은* 언니랑 같이 얘기도 좀 했지. 교장샘이 처음이라 그렇지 나중에는 괜찮다고, 왜 쪽팔리게 울고 그러냐고 그러고, 은* 언니는 샌드위치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쯤 나왔던 거 같아. 그래서 유치장에서 받은 칫솔을 가지고 나왔어. 기념으로 보관하려고.ㅋ

2) 김*현 활동가의 옥살이

▶ 당시 정황이 어땠어요?

- 그 때가 한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야. 발산역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가 나서 그걸 가지고 항의 투쟁을 할 때였지. 지하철 선로점거 택(작전)을 짠 거지. 그게 2003년 여름.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내려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광*이 형이 혼자서 내려가기로 결의했는데, 비장애인 몇 명 조직해서 광*이 형 내려주고, 플래카드 걸고, 구호도 외치고 현장을 지도해 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경석이형이 나한테 부탁한 거야. 난 그때 잠시 인권운동연구소에 가 있었거든. 그래서 한 거고 경찰이 오기 직전에 비장애인들은 모두 빠져나왔지. 근데 이후에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어 출석요구가 나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거지. 2003년 8월에 들어가서 2004년 4월까지 8개월 있었고. 그전에 내가 에바다 투쟁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게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라 우리 쪽에서 일부러 최대한 재판을 길게 끈 거지. 재판 과정에서 검사 구형량이 8개월이었고, 그래서 8개월이 지난 후에는 나와서 마저 재판을 받게 되었지. 그걸 구속만기보석이라고 해.

▶ 형만 구속된 거예요?

- 응. 그래서 나중에 광*이 형이 자신을 구속하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 검찰이 주로 적용시키는 죄목이 집시법 위반이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특공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공방치상) 같은 거야. 특공방은 집단적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 상해를 가했다고 진단서 따면 특공방치상. 개념은 중증장애인에게 그런 걸 적용시키기가 여러 모로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데 우리에게 압력과 탄압을 가하고는 싶고, 그럴 때 만만한 게 비장애인이지. 실제로 우리가 싸우게 싸우는 것도 있고.

▶ 벌금이나 구속이 무섭진 않아요?

- 기본적으로는 벌금이나 구속 그런 것 때문에 움츠러들진 않는데,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건 있지. 너무 많이 그러면 조직에도 부담이 가는 거잖아. 벌금도 그렇고, 주요 활동가가 구속되면 공백도 생기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장애인 동지들이 현장에서 잘 싸우시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비장애인) 자기 분노 때문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건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지. 상황을 봐가며 조절을 해야지. 이런 싸움이 한두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니까. 과도하지는 않게, 그러나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뭐 이런 정도의 기초를 갖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지.

장애인
인권운동에
가해지는
탄압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운동이 탄압을 받고 있다. 故송국현 동지의 화재 사건으로 인한 국민연금관리공단 항의방문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 2일

‘장애해발열사 단’의 박승하 활동가가 구속됐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 또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다행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얼마 전 서울구치소에 승하 면회를 다녀왔다.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맘이 찡하다. 그래도 들어간 지 보름이 넘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제법 여유가 있어 보인다. 날짜 가는 걸 세기 위해 손목에 볼펜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다. 저 선 하나를 긋는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갈까 싶다. 승하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장애인활동가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제 광화문 농성장에는 10개의 영정 사진이 놓이게 되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구속이 돼야 하는 걸까.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투쟁이다.



김준혁 동지 1주기 ◀ 추모사 준혁, 그를 잊지 말아요

▶ 문예판 민정



너무 많았던 희망, 준혁이 형께!

아이 같은 미소로 주위를 행복하게 하던 형!
누군가의 부탁을 자기 일처럼 해결해주던 형!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늘 함께 공감해주던 준혁이 형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겐 그저 그런 일일 테고 또 어떤 이에겐 단지 시끄러운 일일 테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너무도 맑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정화시켜주던 한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함임을 그분들은 알까요? 참 많이 아팠을 시간들을 혼자 견디며 주위를 위해 웃어주었던 형! 아직도 형을 생각하면 심장 한 쪽이 아린 것은 단지 그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도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보다 올바르고 누구보다 맑았던 형, 하지만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쉽게 깨진 사람! 어쩌면 세상은 그런 그의 죽음을 덮으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를 잊지 맙시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형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1년 전입니다.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혼자 마지막을 견뎌냈을 준혁이 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웃고 떠드는데, 그가 이곳에 함께 할 수 없음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배부른 것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시끄럽게 뭐하는 거냐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혁이 형의 인간다움을, 그 따뜻함을 알까요?

우리가 그를 그리워하는 것이 단지 한 사람의 동지를 잃어서가 아니라, 너무 착하고 티 없이 맑았던 한 사람의 희망을 잃어서임을 알까요?

준혁이 형은 늘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동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하던, 그래서 곁에 있으면 언제나 든든했던 존재! 세상은 그냥 한 장애인의 죽음쯤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를 옆에서 봐온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혁이 형이 하늘에서만큼은 부디 편히 쉬길 간절히 바랍니다.

故 김준혁 동지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 맹장 파열 수술 뒤 패혈증 쇼크 등의 증세로 숨졌습니다. 고인은 장애인운동을 비롯한 여러 현장 투쟁에 함께했고, 장애인문화예술관의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노들 김명학

2014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서 우리는 각자 한해를 뒤돌아 보는 때입니다. 한해를 뒤돌아 보면은 좋은 일도 많지만 아픔이 더 많은 한해를 보내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잘보내 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픔들이 드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못한 것들이 아픔으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세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그중에 세월호 사고는 물론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을 큰 충격과 슬픔으로 몰고 가던 큰 사고였습니다. 8개월여가 지난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안해 하고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도 잘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2년 넘게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 해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슬프게 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며, 새해엔 우리의 의욕과 사회에 웃을 일들이 많았음 좋겠습니다. 그런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카페 별꼴의 지난 일 년

▶ 카페별꼴 매니저 J와 C

별꼴이 월곡동으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이사하고 한동안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리고 끝나지 않는 짐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유너머R과도 헤어지고, 예전 매니저들도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또 노들야학과도 더 멀어진 외딴 동네로 오니까 단골손님과 친구들을 볼 기회도 적어져서 한동안 많이 외롭기도 했어요. (특히 매니저였던 명학 삼촌이 노들 상근자로 가게 되어서도 더 그랬어요. 흑흑~) 예전에는 3층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드나들었는데, 1층으로 이사를 오니 외판원에서부터 전도사, 동네 아주머니와 아저씨 등등 낯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낯설었고요. 그래도 거의 매일 카페에서 보내다보니,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던 것들도 조금씩 익숙해지네요.



카페 별꼴은 매니저들이 생각해도 참 애매하고 이상한 장소이지만, 그래서 더 사람을 끄는 묘한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이 장소에서 일 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이사 오고 인테리어가 채 끝나지도 않았던 때 열렸던 비영리예술단체 로사이드(<http://rawside.kr>)의 '어떤 아트 투어'가 떠올라

요. 청개구리제작소(<http://www.fabcoop.org>)와 매니저A가 열심히 조명을 만든 덕에, 공연 30분 전에 우리는 극적으로 카페에 전깃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골든스윙재즈 밴드가 라이브 공연을 하고, 남녀노소,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인 사람들이 각자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공연이 끝난 후 그림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하하호호 웃던 모습이 정말로 옛것처럼 같은데. 별꼴이 이사를 온 후 새로 사귄 친구 로사이드와는 그 뒤로도 이런 저런 재미난 일들이 잔뜩 있었네요. 최근에 (매니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흥석환 작가의 첫 개인전도 별꼴에서 열렸어요. 오프닝 파티에는 여러 사



람들이 모여서 흥 작가 작품에 나오는 똥을 쿠키로 구워서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ㅋㅋ

이전 매니저였던 우리의 친구 노랑사의 4+파티, 장애/비장애 청소년들과 함께한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워크숍, 물비누 만들기 워크숍, 장애인문화 예술판과 함께했던 장애인영상제작 발표회, 장애 여성들의 연극 발표회, 아나키즘 독서회, 별레벨 레배급사와 함께했던 여러 번의 영화 상영회와 '일하지 않는 자의 날' 카레 만들어 먹기 행사, 제주 강정마을 관련 다큐 상영회, 카페 문을 다 개방하고 주렁주렁 옷가지를 걸어놓은 채 열었던 벼룩시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기획했던 휠체어에 LED조명 달아주기, 중증장애인 POP 손글씨 작품 전시회 등등 대충 꼽아 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열린 행사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드나들었죠.

도무지 한 자리에서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 월곡동으로 이사 온 뒤 별골이 경험하는 특이점이지 않을까 해요. 휠체어에 LED조명을 달기위해 오신 할아버

지가 앉아 있는 테이블 너머로 인근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들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한참 떠들기도 하고, 근처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신문을 돌리러 오는 분들, 커피 맛집을 찾아온 커피 마니아, 데이트하러 온 연인들, 워크숍에 참석하러 온 멀썩하고 참해 보이는 십대들과 밤에 한껏 멋을 부리고 와서 화장을 고치거나 담배를 피우다 돌아가는 십대들, 카페에 붙은 이런저런 포스터나 유인물을 보고 '인권'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 어본 사람들, 패션모델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 봉제공장 야근을 끝내고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과 봉제공장 야근을 끝내고 들러서 손바느질 지갑을 사는 사람들, 이런저런 단체의 활동가들과 활동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술가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아이들, 여기가 카페인줄 알고 온 사람들과 여기가 대안공간인줄 알고 온 사람들과 여기가 복지관인줄 알고 온 사람들, 여행길에 물어 물어 찾아온 외국인들 등등, 정말 어디서 어떻게 모였는지 종일 별골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아, 얼마 전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고 남쪽 어디 먼

나라에서 왔다면, 항상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가 직접 커피를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선물로 주기도 했답니다.

카페 별골은 매니저들이 생각해도 참 애매하고 이상한 장소이지만, 그래서 더 사람을 끄는 묘한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별골에 있는 이상한 정보에 접속하기를 바랍니다. 카페별골은 장애인권, 운동, 사회, 문화, 예술 등과 관련된 이상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인포샵(infoshop)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쟁유인물, 포스터, 책자 등을 모으고 있어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아주 소중한 (노들바람 같은!) 독립 출판물들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상영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느 카페보다 더 맛있는 다크 로스트 커피와 유기농 우리밀 브라우니를 항상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언제라도
카페별골에 놀러오세요~!**



★ 영업시간 ★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이나 월요일은 카페 영업 대신 행사를 주로 합니다. 행사 공지는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http://facebook.com/cafebyulkkol>)

★ 메뉴 가격 ★

3,500원~5,000원 정도. (장애인/청소년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 1천 원 할인이 됩니다.^^*)



인강원과 함께한 2014년을 돌아보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아, 여기 정말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작년 3월,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로 온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해당 시설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도봉구에 위치한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인강원이다.

인강재단 산하 시설 이용인과 거주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인강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가 생각난다. 4차선 도로로 차들이 썩썩 달리는데, 그 도로에서 골목으로 꽤나 오래 들어가니 정문이 하

나 나왔다. 그 정문의 울타리 안에는 인강원,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인강학교 등이 마치 하나의 왕국처럼 몰려있었고, 주변은 가끔 산책이나 하기 좋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불시 - 그러나 재단 측은 알고 있었을 - 에 진행된 조사는 인강원 측의 반발로 마찰을 빚었고, 결국 예정 시간보다 한참 늦게 상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난 상담이 끝나기도 전에 '아, 여기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느꼈다. 이와 관련된 일화는 다양하다.

한 조사가원이 거주인과 나가서 상담을 하기로 했

는데, 그 분에게 필요한 휠체어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설명을 요구하니, 지금 상담중인 다른 거주인이 이미 휠체어를 쓰고 있다는 변명에 할 말을 잃었다. 인강원 내에는 이렇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거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조차 없었다. 그에게 이번 상담은 몇 번째 외출일까, 어떤 의미일까, 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거주민들의 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단서 중 하나는 '준비된 답'이었다. 상담 중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거주인들은 매우 위축된 모습으로 '아니오',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는 답변을 해왔다. 어떤 거주인들은 이야기는 고사하고 조사원과 시선조차 맞추지 않으려했다.

다른 한편 어떤 거주인들은 온몸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며 그동안 시설에서 있었던 체벌과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해주었다. 빗자루나 쇠자를 이용한 폭행과 손지검 등도 경악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건 일상적인 언어폭력이었다. 욕은 물론이고 장애에 대한 비하와 무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거주인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로 미루어보면 '2차 피해'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 거주인들을 밤에 한 명씩 차례로 불러내 목을 긁는 행동이나 수갑 차는 시늉을 보여주고, '예전에 작성한 반성문으로 너도 감옥에 갈 수 있다'며 협박을 가해 '맞은 적이 없다'는 경위서를 억지로 작성케 했다.

이 외에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아프다며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하던 거주인, 종일 하는 것 없이 운동장을 서성이기만 한다는 거주인,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많았던 거주인, 정문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거주

인,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절박하게 묻던 거주인의 모습이 내 기억 속에 어지럽게 얼룩져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후 10개월, 달라진 건 없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이루어져 인권유린 가해자 및 비리횡령 책임자인 인강원 전(前) 원장, 부원장, 생활재활교사, 법인 이사장 등 총 4명이 기소되었고, 작년 9월 16일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사 해임, 보조금 환수, 무자격 재활교사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으나 인강원 측은 이에 불응하여 현재 행정소송 또한 이어가고 있다.

작년 8월 서울시는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의 면담 시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강원의 폐쇄를 결정했고, 이를 위해 거주인 전원초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부모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본격적인 시설 폐쇄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9월부터 원장과 사무국장 등의 월급을 집행 중단하고, 10월부터는 전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후 1년, 조사결과 발표 후 10개월,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진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없다.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차 피해를 야기하였고, 3차·4차 피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일어난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무

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9월 29일, 서울시는 증언을 위해 법정에서 피해 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조력인 및 법정대리인 배치 등을 포함한 법적 지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 장애인은 가해자가 바라보는 앞에서,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정당한 편의조치 제공받지 못한 채 증인신문에 응하는 반인권적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인강원 측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을 지내 복지행정에 누구보다 눈이 밝은 박필숙 원장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언제나 시설의 최후 방패막이로 내몰리는 부모들을 앞세워 호소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조직하였으며, 거주인과 부모들에게 필요한 더 나은 서비스로의 접근권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강원의 농간에 휘둘려 거주인 전원을 위한 기본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인강원의 폐쇄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탈시설·전원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인강원의 거주인들이 하루빨리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탈시설을 이야기할 때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 온 사회가 분노로 들끓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는 성과도 있었기에 시설문제는 도가니로 끝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 큰 착각이었다. 올해 초 복지부가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 조사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8건이고, 우리가 당장 손꼽는 것만 해도 인강원, 자립원, 한우리, 향림원, 형제복지원, 상록수, 구미SOL 등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인강원 사건은 그나마 해결의 여지라도 있는 쪽에 속하는 듯하다. 이것 또한 나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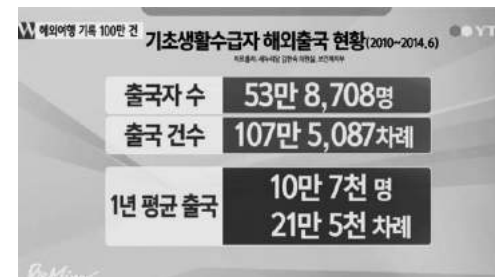
만약 나의 간절한 바람대로 인강원 사건이 해결된다면 나의 고민은 끝이 날까? 인강원 사건이 ‘잘’ 해결되어 사회복지현장에 좋은 선례로 남는다 하더라도, 도가니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인강원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제는 시설문제에 대해 소위 각개전투식으로 대응하거나 지자체의 의지 따위에 기대는 것은 넘어서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법적 조항이, 그리고 인권침해 및 비리가 알려지는 그 즉시 바로 조치 가능한 ‘매뉴얼’들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나의 선배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탈시설을 강력히 이야기할 때다. 사람의 존엄보다 관리의 편의가 더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인권 유린과 비리가 나타나도 결국 내부적으로 무마되는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제는 사회가 극심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지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더욱 무겁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회를 깨우고 시설을 흔드는 운동을 다시 가열차게 시작하자는 것! 함께 해요, 우리.

해외여행 자주 가는 ‘자산가’ 수급자, 나? ‘가난의 자격’을 요구하는 사회와 언론에게

노들야학 스타

따사로운 햇볕이 비치는 일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한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의 시초가 될 줄 몰랐다.



YTN 뉴스는 지난 2014년 9월 한 해 평균(2010년~2014년 기준) 10만 7천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1만 5천 차례나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자산가’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의 뉴스를 본 나는 뒤통수를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자산가였다니, 나는 숨겨둔 재산이 있었던 걸까? 숨겨 두지는 않고 그냥 돈 우리 집 자동차를 보고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1,000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36개월 할부로 산 8년 된 자동차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생계 수준이 낮아졌나?”

당연히 나는 자산가도 아니고, 숨겨둔 재산이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 하위 2.6%, 저 옛날 생활보호법이 있을 당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오늘날까지 21년째 수급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자기 소개를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라 부끄럽다). 그리고 올해 해외여행도 갔다 왔다. 작년에도 갔다 왔고 재작년에도 갔다 왔다. 그리고 보면 저 뉴스는 분명히 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은 선교단체에서 단기선교를 하러 후원받아 갔었고, 한 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받은 후원금을 좀 아껴쓰고 동생과 해외에 갔었다. 그리고 올해 여행은 애인과 갔다 왔다(애인은 돈을 버니까 나보다 조금 더 부담했다). 그 여행의 비용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빈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그것을 이용하는 정부에 있다.

연일 신문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조명할 때 허름한 옷차림, 쓰러져가는 집, 고추장 반찬이 전부인

식사를 보여주며 이것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논리로 연장된다.

어제 아침 내가 목격한 뉴스도 그 논리와 다르지 않다. 허름한 쪽방에 다 망가진 슬리퍼를 신고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는 방에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사는 국민곤층의 삶인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냐? 왜 자동차가 있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라고 묻는 꼴을 보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조(목적)에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 4조(급여의 기준 등)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동차도 있어야 하고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즉 수급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금액인 것이 아닌가? 기준을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할 만큼 턱도 없이 낮춰놓고서는

이 기준보다 높은 삶을 사니 수급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외치며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정신고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했던 일이 복지부정이라고 얘기하며, 필요한 사람에게서도 복지서비스를 빼앗는 것이었다. 필요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2014년 6월 기준 134만 명, 전체 인구의 2.6%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0년 155만 명(3.1%)이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죽음의 死통망'이라 불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한 이후 급감했다. 신규 수급자 수보다 탈락한 수급자 수가 훨씬 많아졌다.

나랏님들은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냈다고 방방 뛰며 기뻐했겠지만, 사회가 부정수급자라 부르던 그 사람들은 최저생계비 603,403원(1인 가구 기준)에 맞춰 단단히 그어진 그 선 밖으로 밀려난 희생자였을 뿐이다. 무슨 거대한 타워팰리스에 살고,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나처럼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던 와중에 어찌

다가 1원을 주워 최저생계비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분류되어버린 것일지도.

나는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한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최대한 싼 커피집을 찾아다니며 마신다) 가끔 국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가는 것이 내 낙이다. 최저생계비를 수급비로 받는 나로서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 낙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지출은 조금씩 줄이는 것이 필요했다.

물론 이 최저생계비로 사람은 살 수 없다. 터무니없이 적다. 나는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받는다. 1,075,058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들어온다. 엄마, 동생과 나눠 사용하는 돈이다. 중학교 다니는 동생의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식비, 통신비 등을 쓰고 남는 것을 우리 셋이 용돈으로 쓰는 거다.

나는 공식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다. 그렇지만 학교까지 가는 차비가 월 10만 원은 들고 밥값이며 하면 금방 동난다. 그럼 다시 엄마와 상의해서 돈을 더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여기서 아끼고 아껴 5만 원 씩 모아둔 돈으로 가끔 여행을 가는 거다. 기차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자전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어쩌다 한 번 외국으로 나가고 싶으면 하루에 항공사 홈페이지를 열 번 정도 들어가 프로모션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들어가 저렴하면서 묵을 만한 리조트가 있는지 이 잡듯이

뒤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저의 돈에서 최고의 만족을 뽑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한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나는 단지 그 돈을 정부에서 받는 것뿐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학생이다. 가족이 가난해서 수급비를 받고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는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TV에 나와 보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해 ARS 후원금을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다리를 구부려야만 누울 수 있는 집에 사는 것도 아니다.

나의 가난함을 부디 해외여행, 좋은 집, 자동차 등의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지 말아달라. 나는 이미 벌써 끊임없이 가난함을 증명하고 일시적 근로 무능력함을 증명하기 위해 재학증명서를 수도 없이 정부에 바쳤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려 30만 원의 수급비가 깎인 적이 있어 더 이상 숨어서 일하지도 못한다.

나의 통장을 매달 탈탈 털어 감시하면서 해외여행 몇 번 나갔다고 나를 자산가로 모는 정부가 무섭다. 빈곤을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강요받는 지금이 순간이 너무 비참하다. 더럽다.

함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텐데, 그렇게 부정수급자라는 칼로 나를 찌르면 많이 아프고 서럽다. 다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나의 삶은 앞으로 계속 존재하니까.

기초법 개정, 가난한 이들의 네버엔딩 스토리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2001년 12월, 여성이자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자 노점상이었으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했던 최옥란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그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최저생계를 전혀 보장하지도 못하는 수급비가 나오기 전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하루하루가 고달프다고 했다. 얼마의 생계비라도 보충해볼까 싶어 노점상으로 거리에 나서면 “수급비를 받던지 노점상을 하던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은 불과 일 년 만에 그녀를 법 개정 운동으로 내몰았다.

빈곤사회연대는 최옥란 열사의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결성된 기초법연석회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노동의 불안정화와 민중의 빈곤화에 맞서 광범위한 도시빈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2004년 빈곤사회연대를 결성하였다. 그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4년, 빈곤사회연대가 결성된 지 10년 만인 2014년에 기초법은 최대의 개정을 겪게 되었다.

이른바 ‘세 모녀 법’이라고 불리는 기초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2014년 2월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강렬한 슬픔을 안겼다.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기 전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와 고혈압 및 당뇨에 시달리던 첫째 딸, 만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보다 일찍 신용불량자가 된 둘째 딸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는 아무것도 없었다. 건강보험도, 산재보험도, 실업급여도 그들에게는 무용했다. 그들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했다 할지라도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취약한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그보다 더 취약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법 개정’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 내용은 개별급여 시행, 상대적 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들이었다. 2013년 5월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정부를 대신해 기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슬로건은 수용, 내용은 불용: 목표도 효과도 없는 기초법 개정안



사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구상은 2010년에 나온 것이다. 당시 기초법 등 제반의 빈곤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는 학계와 함께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했고, 빈곤사회연대는 이 내용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기초법 개정에 맞선 싸움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개정안의 실체는 점차 명확해졌다. 슬로건은 수용했지만 내용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결격이 없을 시 기초생활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만 3천 원,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현금 급여는 48만 8천 원이다. 60만 3천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시에는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최대 현금 급여에서 소득만큼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All or Nothing(전부 혹은 전무)’이라며,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급여 박탈이 일어나는 상황과 이 때문에 탈수급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별급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나 동의할 이 전제의 결론은 다소 이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기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를 제외한 개별급여는 차상위계층도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

다. 비수급 빈곤층에게 가장 긴급한 욕구인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제자리에 있으며, 오히려 나빠질 전망이다.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150만 원의 소득에 5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던 '주거빈곤층'이었지만, 3인 가구의 경우 141만 원이 될 개정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송파 세 모녀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탱하던 주요 개념인 '최저생계비'가 무력해지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주무부처가 각각 국토교통부로 교육부로 이관되고 자활사업의 대부분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는 등 제도 운영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사회권을 명시한 공공부조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명백한 후퇴다.

❗ 공공부조의 영역 축소, 예산 절감

이번 개악의 근본 목표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공부조 영역의 축소와 예산 절감이다. 정부는 빈곤정책 확대를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작년 9월 확정된 2015년 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항목을 보면 정부는 2014년에 비해 7.9%나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로 이관될 사업(6,987억 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2014년보다 전체 규모가 줄었다. 최저생계비가 2.3% 인상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삭감액은 더 커진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서 예산을 축소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매우 의아할 따름이다.

이번 기초법 개정은 향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최대한 축소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 진행하던 자활사업의 대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이미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시장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빈곤층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평가만으로 수급권조차 받지 못하거나, 추정소득만큼 삭감된 수급비만으로 살아가거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무리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을 강제하지 않으면 복지에 안주한다는, 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지니고 있는 낙인적 인식의 결과다.

❗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격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변화는 매우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구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하며 그 최우선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었고, 17개 행정부처 합동으로 '부정수급 통합 콜센터'를 설치했다. 임대아파트와 쪽방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서로를 신고하는 일이 횡행했고, 전국 곳곳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복지제도 이용자에 대한 경찰의 개인정보 요구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후 자살한 거제 이 씨 할머니도, 송파 세 모녀의 상황도 정부의 부정수급 프레임 안에서는 제도 개선의 초점이 되지 못한다.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은 부정수급자들의 탓'이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수급자에 대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보장하는 것) 조항은 사실상 강제노동 규정으로 가능하며 수급권을 제한해왔으나, 정부가 향후 강화해 나갈 '노동 강제'에 비교하면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대한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우선 지원 대신 기존 수급자에 대한 채찍을 들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자

지난 2010년 가을, '나 때문에 아들이 못 받는 것이 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동사무소 분들이 장애를 지닌 아들에게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그에게 아들의 장애는 너무 비싼 아픔이었다. 자신의 월급 때문에 어머니의 수급권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빈곤사회연대로 전화를 걸어온 한 여성은 얘기했다. "방법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민을 가든, 치매 어머니와 어떻게든 살다 굶어 죽든, 아니면 제가 먼저 죽든."

살기 위해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던 최옥란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다. 여전히 빈곤층이 하루가 멀다 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지금, 우리는 광화문에서 3년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 역사 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그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다'는 IMF의 경험과 각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14%,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은 7.6%다. 수급권을 지닌 2.6%를 제외한 빈곤층이 사실상 무복지 상태에 놓인 사각지대다. 시간의 축을 조금 더 넓혀보자.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경험해 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4%다. 대략 4가구 중 1가구가 최소 5년 중 한 차례는 절대빈곤에 빠진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7.6% 가량의 절대빈곤층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하는 우리사회의 불안정한 계층에게도 더 큰 절망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11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117만 명은 사실 사각지대가 아니다.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대상으로 잡혀 있던, 지금도 예산만 편성하면 바로 빈곤정책 내부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사각지대에 남겨놓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를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5년 만의 가장 큰 개정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다. 교육급여에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주거·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건재하다. 정부는 여전히 사적 부양의 책임이 준수되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임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 이상의 빈곤의 심화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요구하자. 빈곤사회연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연대의 큰 길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아마도 최근 2년간 발행된 『노들바람』을 스치듯 훑어보신 분들이라면 위 구호는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지하 통로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였고 만 2년을 훌쩍 넘겨 800일이 넘게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였으며, 빠르면 2016년부터 현재의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을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등급제 폐지는 많은 부분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장애등급제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입니다.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뀌는 방식이 되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1년 남짓한 기간에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을 낙인찍고 삶과 의식까지 구속했던 장애등급제의 폐지 향방이 가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의 투쟁의 시간, 그리고 잘못된 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故박진영님과故송국현님의 죽음 앞에서 그 성과를 만들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2013. 4. 29.)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개인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관정체계로 단계적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장애관정체계기획단’이라는 새로운 기획단을 꾸려서 논의를 하였지만 특별한 결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빠르면) 2016년부터 현재의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의학적 평가와 더불어 근로능력 및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장애관정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종합관정체계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추진단은 구성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존의 ‘장애관정체계기획단’에 비해 위원 중 장애인단체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단체는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추진단 내의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심지어 논의내용을 외부에 밝히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키는 등 비민주적인 파행운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진단 논의의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4년 11월 5일에 진행된 '장애중합 판정체계 연구결과 설명회' 내용을 보면,

○ 의학적 평가 부분

•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등록제 유지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학적 분과에서 소위 '손상율'이라고 불리는 KAMS(한국장애평가기준) 도입안을 논의 하였지만, 이마저도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행 장애유형과 등록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부분

• 2013년 '장애판정체계기획단' 논의에서 "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은 의학적 기준, 직업 근로능력 기준, 사회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라는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의 추진단 논의 결과물에는 소득보장 정책에 있어 어떠한 대안 논의나 예산계획 논의가 없습니다.

○ 복지욕구사정 부분

• 애초에 추진단은 복지욕구사정 분과에서 종합서비스판정표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계획도 없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판정표를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 포장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를 억압하는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 즉, 복지 욕구사정 부분에서 서비스 판정표를 만들어 서비스 제공 기준은 바꾸겠지만 복지에산을 늘리거나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폐지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바꾸고 생색만 내려하고 있으며, 그것도 장애계와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껍데기만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애등급제는 '차별의 낙인'이며, 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를 정의하고 사회적 관계를 은폐하는 시대착오적인 장애 패러다임 내에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이며,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공포정치'입니다. 공포정치의 피해자와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제 폐지도 필요하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판정도구 개발 수준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패러다임과 이념의 문제이며, 시스템



의 문제이자 한 인간의 권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전달체계 및 시스템의 변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① 기존의 의료적 관점으로만 머물렀던 장애 정의의 전환 ② 탈시설화 명시 및 전환서비스체계 구축 ③ 장애인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및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④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권리옹호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총체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2013년 8월에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출범시켰으며,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제정 방향에 있어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적 기준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손상'의 개념을 탈피하여 사회적 관점이 담겨진 정의를 내릴 것인지 그리고 '장애'와 '장애인' 모두를 정의할 것인지 '장애인'만을 정의할 것인지를 문제가 있습니다. 현

재 초안은 '장애인'만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1. "장애인"이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약 을 경험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둘째,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현재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전혀 부응하지 못 하며, 등급 판정과 서비스 연결 체계가 미흡하고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지 못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과 통제권을 갖지 못 하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의 문제 역시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 시행을 앞둔 발달장애인 법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를 담고 있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에서도 발달장애인법을 토대로 약간의 보장을 하였습니다. 핵심은 개인별지원체계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신청-사정-연계-제공-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장애인위원회'와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리옹호센터'등의 구성과 역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권리옹호제도의 문제입니다. 최근 소위 '도가니', '염진노예' 등의 사건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된 장애인과 그에 따른 대응수단이 부재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부분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옹호는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와 같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 초안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리옹호가 확대방

노란들판의 요한, 그를 알려주나

2014. 12. 23. 노란들판에서 영인

지나 처벌 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전 과정과 장애인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탈시설의 문제입니다. 서구에서는 1950년대부터 제기되었고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한국은 아직 공식성을 갖지도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시설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권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공히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탈시설을 명확히 선언함과 동시에 서울 등에 축적된 성과들을 공식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장애인위원회 및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득보장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며, 정부의 장애급여 지출은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장애급여 지급율은 1.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있어 소득보장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장애등급제가 제한하고 은혜해온 영역이 소득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의 핵심은 복지서비스와 소득보장 영역이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려고 하는데 바로 장애인연금제도와 감면·할인제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근로능력평가(장애판정)와 그에 따른 고용 및 소득보장이 연계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에서는 '표준소득보장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소득보장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할인제도 때문에 등급제를 유지 또는 단순화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등급제 폐지를 예산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며,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의 변화로 완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구체적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장애등급제라는 공포정치로 죽어나가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거대한 대안 제시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문제로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 존 맥나이트

“여잉~”(여잉=영인)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면, 알쏭달쏭한 표정을 하고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풍채가 꽤 듬직한 한 청년이 있다. 뚱한 눈빛, 빠죽 나온 입. 조금은 유행이 지난 가요가 나오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모니터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자세로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부른다. “호짱님~”(호짱=옥상) 가끔 노래도 부른다. “또미쫄 또미쫄 랄랄라 파~” 방심하고 있다가 빵 터지고 만다. 취미가 개그요 특기도 개그인 듯한, 삭막한(?) 노란들판에 한줄기 웃음이 되어 주는 사람. 2013년 1월 8일에 노란들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이제는 어엿한 정규직 직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무심한 듯 소심하고 순수한 듯 능청스러운 막동이 디자이너 주요한(30, 청각장애 2급). 그와의 짤막한 인터뷰. 질문과 대답이 마치 오래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처럼 단답식인데, 질문은 편의상 짧게 생략한 것이고 ‘-에, -며’ 등의 조사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요한의 말투는 있는 그대로를 살린 것이다.



이름: 주요한(30)
별명: 모르겠다. 별명 없는데.
취미: 게임
무슨 게임: 컴퓨터
게임 이름: 왜 물어봐. 하지만.(ㅋㅋㅋ)
특기: 그림
무슨 그림?:마무리.
(인터뷰가 이렇게 끝날 뻔 하였으니... 요한과 대화할 때에는 좀 더 끈기가 필요하다.)
좌우명: 좌우명? 모예요?
좌우명? 음?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말?: 아, 운명. 길.

(요한과 대화할 때에는 자신의 국어실력도 알게 된다.)
꿈이 있는지?: ○○. 귀신, 좀비, 유령 (본인이 곧 꿈을 이야기 함.)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자연, 여유, 그림 (해석을 하자면, 자연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 그림 그리고 싶다.)
하루 중 내가 좋아하는 시간과 그 이유는?: 피곤해서 즐기고 싶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3개. 이유는?: (1) 못생겼다. 못생겨서. (2) 바보. 나는 바보입니다. (3) 상상력.

상상력? 왜 좋다고 생각하나?: 움직이는 것. 수정 많아서, 짜증나서 욱 생각 여러 가지 많이 사람들 볼 때 움직이는 것 생각 많이 한다. 주문이 들어오면 미리 (시안을) 만든다. (디자인)



? 란들판 식구들도 요한에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Q. 민호) 요한이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A. (노란들판은) 디자인 아니에요. 기술, 편집, 노란들판에서 일하는 것은 기술, 편집 같다. '디자인' 잘 모르겠다.

Q. 희찬) 한글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렵다면 도움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 궁금

A. 이상한 단어, 사람들의 부정확한 발음 힘들다. 일반 말 못 알아들어. (일주일에 한 번, 야학에서) 수화 수업만 하고 있다.

Q. 시백) 노란들판에 와서 가장 좋은 점

A. 보통입니다.

Q. 해니) 스트레스 푸는 요한만의 방법

A. 너무 힘들어서 참아. 아무도 없는 곳 가서 혼자 있는다. 일 끝나고 잔다. 우물에 대고 소리 지르면 관찮을 것 같다.

Q. 해니)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A. 부모님

Q. 해니) 요리는 누구에게 배웠는지?(노란들판에서 간식을 곧잘 한다.)

A. 맛있는 것 공부한다. 사람들 하는 것 본다. 떡볶이는 전에 수화선생님에게 배웠다. 라면은 김밥 집에 가서 보고 따라했다.

Q. 상욱) 공장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A. 없다. 상관없는데.

Q. 상욱) 즐거웠던 건?

A. 가끔 즐겁다. 아, 수화수업 할 때 즐겁다.

Q. 상욱) 힘들었던 건?

A. 디자인 수정이 많을 때. 단어 뜻을 몰라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Q. 병진) 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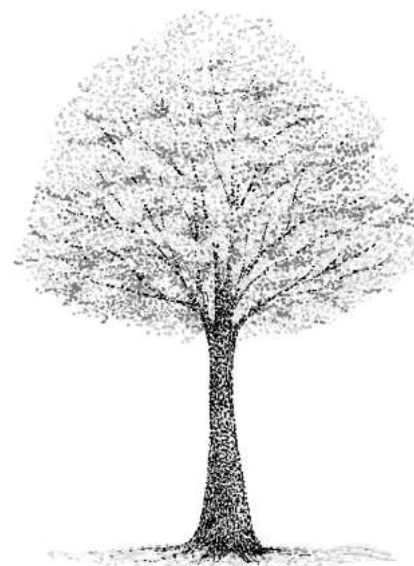
A. 그림 없다. 컴퓨터.

Q. 병진) 이 일을 왜 하나?

A. 돈

Q. 병진)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A. 강수지



Q.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필담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적어줌)

* **시백** 디자인 너무 잘한다... 그런데 영어선생님 포기하나요?

* **옥상** 편집 가끔 잘한다. 그런데 산에 좋아하나요? 산 쇼핑 중독해요?

* **해니** 사무팀 책임 잘하는데. 그런데 동물원 좋아하나요?

* **영인** 사무팀 전화하고 그림 잘하는데, 그런데 디자인 하나요? 만화 포기하나요?

* **수안** 디자인 너무 꼼꼼히 한다. 그런데 다른 일 되고 싶나요?

* **민호** 디자인 좋아하는데 그런데 다른 일 없나요?

* **대식** 디자인 느낌 하는데 그런데 물리치료 없나요?

* **아라** 사무팀 집중에 가끔 보았다. 그런데 웃이 치마 계속 하나요?

* **희찬** 사무팀 가끔 잘하는데 그런데 인터넷에서 TV 보는 거요?

* **봉준** 작업팀 잘 하는데 그런데 철인 3경기 안가요?

* **윤샘(대식 홍보팀)** 자원봉사 하는데 그런데탁구 달인 맞나요?(활를 자원봉사로 알고 있음)

* **병진** 작업팀에 칼다리미 잘하는데 그런데 뭐가 까먹음 많아요?(칼다리미는 현수막 재단용 인두를 말함)

* **범민** 작업팀에 검사해보고 하는데 그런데 컴퓨터 수리 안해요?

* **하나** 사무팀에 택배 보고 맞추데 그런데 아기가 쇼핑 사는 아이요?

* **현준** 이사팀이 구청 바쁘다. 그런데 점심 때 탁구 빨리 하구요?

강통이와 함께한 자전거 여행

노들센터 재환



때가 되었다

2014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 5시, 여느 때 같았으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을 시간. 동송동 사무실에 들러 얼마 전 중고로 구입한 자전거 강통이 녀석의 상태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최종 점검하고 도로로 나섰다. 아직은 채 날이 밝아오기도 전, 조금은 쌀쌀한 새벽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다. 야영을 위한 텐트와 침낭과 매트, 쌀과 먹을거리,

밥을 지어먹을 버너와 코펠, 갈아입을 옷가지와 두 권의 책, 비상용 약품과 슬리퍼, 휴대폰이랑 태양열 충전기 2개, 그리고 휴대용 빔 프로젝터, 이런 저런 것들을 자전거용 가방에 넣어 강통이 뒤에 얹었더니 무게가 장난이 아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설레던 마음들은 강통이가 앞으로 나갈수록 조금씩 멀어지고 이런 저런 걱정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차 사고가 나면 어쩌나?’, ‘강도를 만나서 못 돌아오게 되는 건 아닐

까?’, ‘개한테 물리면 어쩌지?’ 문득 어린 시절 친구와 기어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무악재를 넘어 구파발을 지나 북한산성으로 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쳤던 일이 떠올랐다. 결국 망가진 자전거를 버리고 절뚝거리며 걸어 돌아왔던 기억.

하지만 떠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 즈음의 나는 많이 지쳐 있었고,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자주 폭발하곤 했다. 더 이상은 장애방에 대해서도, 활동과 일에 대해서도, 심지어 기본적인 일상조차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무작정 떠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뒤영킨 혼란스러운 마음을 자전거에 같이 얹은 채 나의 여행은 시작이 되었다.

길에서 만나다

온 몸이 쭈서왔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는 근육진통제를 먹어도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강통이 녀석도 힘이 부치는지 가끔 핑크가 나고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등 말썽을 부렸다. 맞바람이 부는 날에는 짐들의 부피와 무게로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길 위에는 메뚜기, 사마귀, 지렁이, 뱀 등 피해야 할 녀석들이 천지에 널려 있고, 잠자리는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하루살이는 눈과 입속으로 돌진해 왔다. 강통이 옆을 쏘살같이 지나가는 자동차는 자전거 여행객의 쫓깃쫓깃해지는 심장을 헤아리는 아량까지는 베풀어주지는 않았다. 해가 질 무렵이면 지친 나와 강통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쉬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야 했고, 가을의 끝자락으



로 향하는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 텐트의 겉과 속을 축축하게 적시고 몸을 얼어붙게 했다.

물론 모든 여행이 그렇듯 나에게도 힘든 일들만 있지는 않았다. 길 위에서 만난 풀과 나무, 해와 달, 강과 바다, 바람과 비. 그것들은 어느 날에는 나를 거세게 몰아붙이기도 했지만 어떤 날에는 내 맘을 살살 달래주기도 했으며, 순간순간의 인연들과 포개져 더욱 진하게 나에게 다가 왔다. 파이팅을 외쳐 주었던 팔당 근처의 어머니, 자신이 사용하던 비닐과 돛자리를 건네주신 충주의 참교육 어르신,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삶은 고구마와 김치를 주고 가셨던 할머니와 손녀, 10년 만이었지만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대해 주셨던 진안의 스승님, 빛속에 7시간을 달려 만난 광한루의 춘향, 목포에서 짧고 굵게 같은 길을 달렸던 노원구에 사는 청년, 삭신이 쭈시는 나를 위해 탄산 온천에 데리고 가준 제주 사는 친구 땡칠이와 아이들,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한참을 뒤따라 온 진도의 창수라는 어린이,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안부와 격려로 나를 계속 달리게 해준 내 휴대폰 속의 사람들. 가는 곳 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인사를 건네주고, 함께 길을 가 준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다.

살면서 가끔은 나만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은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없이 막막해지는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 돌이켜보면 그때에도 결국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것 같다. 사람으로 인해 너털너털해진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났던 여행길이었지만, 다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살아온 삶의 따뜻했던 어떤 순간들과 마주할 수 있었다.

때론
흘러가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8일. 애초 계획은 자전거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출발 전 며칠 동안 지도를 보면서 하루하루 갈 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미리 체크했다. 28일이면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돌아보기에는 나름 충분해 보였다. 여행을 시작한 첫째 날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렇지만 이틀째 되는 날부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 분명 지도상에는 길이 있는데 당최 찾을 수가 없어 헤매기도 했고, 길을 잘못 들어 한참 지나왔던 길을 허탈하게 되돌아가기도 했다. 여행 초반부터 체력은 쉽게 바닥이 나서 조그만 언덕도 자전거에서 내려 강통이를 끌고 가게 되었고, 핑크라도 나는 날에는 수리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일정을 위해 오늘 계획한 곳까지 무리를 하면서 가다보니 몸은 더 힘이 들었다. 무슨 사이클 선수라도 되는 듯 바로 앞만 바라보고 기를 쓰며 페달을

돌리고 있자니, 내가 달리고 있는 건지 땅이 내게 다가오는 건지 착각마저 들어 헛웃음이 났다.

더 이상 런 키퍼(운동 측정 앱)가 알려주는 지나온 거리와 시간과 속도는 의미가 없었고, 네이버 지도의 자전거 이동 소요시간도 나오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의 여행은 애초의 계획과는 무관해졌다. 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쉬엄쉬엄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골 마을을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고, 사람 한 명 지나지 않을 듯한 산길을 지나기도 하고, 강가에 한참을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다리 밑 그늘에 누워 담배를 피우면서 망중한을 즐기기도 했다. 가슴 뭉클하도록 노을이 아름다운 날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산 넘어 사라져가는 해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고, 마음까지 후련하도록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지도 읽은 채 무심히 처마 밑에 앉아서 온통 투명해지는 세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렇게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고 마음을 먹으니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비로소 내가 여행을 하고 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때론 기를 쓰면 쓸수록 더 엉망이 되거나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고, 서로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엉뚱한 것에 매달려 기를 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기곤 했다. 내일 내가 어디로 향해 갈지, 어느 곳에 머물지 나는 알 수 없다. 당분간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마음 가는대로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다.

미완의
바퀴자국

여행을 시작하고 18일째 되는 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체험휴과 관련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으며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전화였다. 기운이 좀 빠졌다. 내가 있던 곳은 해남 근처였고, 다도해와 동해의 길 등 아직 돌아볼 곳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해남 터미널에서 강통이를 고속버스에 싣고 부산으로 점프를 한다. 부산에서 낙동강 길을 따라 문경새재를 넘어 서울로 갈 생각이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다음에 다시 와봐야 할 곳을 남겨둔 거라 스스로를 위안하며 여행을 마무리 한다. 이번 여행에 대한 기록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여행한 기간:**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 간
- **강통이와 달린 총거리:** 약 1,800km
- **짐들의 무게:** 약 20kg
- **당일 이동 거리:** 최고 130km, 평균 85.7km
- **지나온 곳:** 8개 도(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경북)의 29개 도시(양평, 여주, 충주, 청주, 세종, 공주, 부여, 서천, 군산, 익산, 전주, 진안, 남원, 담양, 광주, 나주, 목포, 제주, 서귀포, 진도, 해남, 부산, 양산, 창원, 밀양, 대구, 구미, 상주, 문경)
- **비가 온 기간:** 5일
- **강통이 핑크:** 앞바퀴 1번, 뒷바퀴 4번
- **배 이용:** 목포에서 제주, 제주에서 진도(벽파진항)
- **버스 이용:** 해남에서 부산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몸으로 느끼고 확인한 것들이 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과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힘든 길을 피하면 더 힘든 길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과 조금만 더 갔더라면 쉬기에 안성맞춤인 경치 좋은 곳이 나왔을 거라는 것, 지나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건 무척 힘든 일이며 마음먹고 가고자 한다면 못갈 곳이 없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은 지나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대한 교훈처럼 다가왔다.

미완의 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한 채 나는 다시 내게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행을 시작할 때는 뭔가 많은 것을 정리해서 돌아올 수 있을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아직은 무엇 하나 정리된 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조금하거나 불안하진 않다. 어떤 길을 가게 되건 그 또한 나의 길이니 그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강통이와 함께 남은 길들을 돌아볼 생각이다. 그때는 또 어떤 필연과 우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왠지 모를 미소를 머금게 된다.



벌써 2년

노들야학 죠스



그 모든 게 치밀한 계획도 없이 총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나도 야학 교사 한 번 해볼까?”

2년 전 그때, 난 왜 그리도 쉽게 그 말을 냈을까.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난 참 생각이 없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즉흥적으로 신입 교사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당시 나는 노들야학과 수유너머이 함께 진행하는 현장인문학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야학의 분위기를 엿보고, 야학 사람들과 니체를 읽고 장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다. 가끔 만나는 노들은 엄청난 일정과 투쟁 속에서도 언제나 '이상한' 활기가 넘쳤고, 나는 그 활기에 이끌려 학생 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생소하거나 익숙한 개념들, 하지만 일상생활 곳곳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관념들을 주제로 사회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치밀한 계획도 없이 총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신입교사 딱지를 떼고 노들야학의 정교사가 되



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약 한 학기 동안 노들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참관하고, 신입교사 세미나에 참석하고, 2주에 한 번 열리는 교사회의에 함께하기. 이것은 야학을 이해하고 자신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없었다. 신입교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는 뽕뽕 쳐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나는 곧 다른 일을 시작해야했기 때문이다. 핑계를 대자면, 재작년과 작년 나는 두 편의 연극 작업을 하느라 노들야학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한 학기, 또 일 년이 흘러가면서 노들을 찾아오는 일이 좀 민망해질 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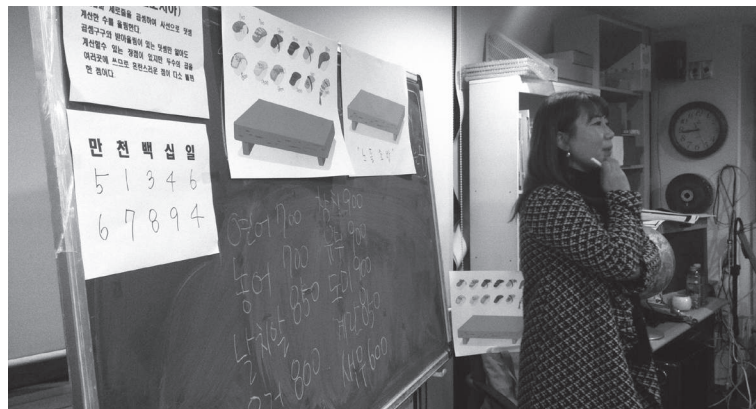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못하겠다. 미안하다.'라고 말한 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내가 취하는 태도다. 그런데 2년째 철판을 깔고 잇힐 만하면 찾아와서 한 번씩 수업을 참관하는 나의 '이상한' 근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심지어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아직도 정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민망하지조차 않았다. 물론 트레이닝 과정을 잘 마치고 정교사가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여전히 신입교사인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이상한 활기와 총동으로 가득한 이 공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 공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이 내겐 중요했다.

때론 치밀한 계획하에서 시작된 행동보다 가벼운 총동에서 시작된 행동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도 없고, 그 시작과 끝도 알 수 없으니. 나와 노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노들이 내게 이별을 고하지 않는 이상, 나는 몇 년이고 노들을 찾아오고 뜬금없이 수업 참관을 하고 여전히 신입교사인 채로 유령처럼 노들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벌써 2년, 2014년은 벌써 흘러갔고 내가 참관하지 못한 수업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쓰고 보니 변명 아닌 변명을 한 셈이 됐지만, 언젠가는 정교사가 되겠지!^^

천천히 즐겁게 함께!

노들야학 호연



수업보조 활동을 하다 신입교사가 되어 노들 모꼬지도 함께 가보고, 강화도 자람도서관에서의 교사수련회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수학3반 수업을 하게 된 호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용~~~^____^

일상: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조금 더 성과를 올려보자는 마음은 나를 더욱 더 일에 몰두하게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쯤, 이대로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일까라는 의문과 함께 '이렇게 현재에 안주해버릴 수도 있겠

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인지 미래에 대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불안감의 이유를 찾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배움의 기회가 필요했다. 나는 노들야학을 그런 배움의 공간으로 찾게 되었고, 현재 매주 월요일 3·4교시에 수학3반에서 학생들과 함께 배우며 가르치고 있다.

첫걸음은

나는 2012년 겨울 부터 수업보조 활동을 통해 노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교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섭외전문 담당(?) 선생님들 포섭에 넘어가 술기운에 덜컥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해버렸다. 그 후 자연스럽게 격주로 있는 교사회의에 나오게 되었고(나는 누구? 신입교사. 여긴 어디? 교사회의실^^:), 정신없이 몇 달을 지내다보니 어느 순간 정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교사 인준을 받고 나니 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많은 고민들이 생겨나고, 과연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수업보조 활동을 할 때보다 마음은 좀 더 무거웠다.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에서 나는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아직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선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날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적도 있다.-.-; 선뜻 그 자리에선 답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다.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학생 분들이 알게 되시리라 믿는다. 그러한 배움의 길에 부족하나마 좋은 길동무가 되어 드리고 싶다. 언젠가는 국어시간보다 수학시간이 재밌을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가져보며^^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초기에는 이런 저런 어려움도 겪었지만, 노들과 함께 할수록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걸 내 마음이 말해주고 있다.

노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내 감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는 듯하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산다 해도 우리에게 하루는 24시간뿐이다. 노들은 나에게 시간을 쓰는 방법, 그리고 인생관까지도 시나브로 바꾸어 주고 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노들에 참 고마운 마음이다. 우리, 천천히 즐겁게 함께해요!

수학시간보다 국어시간이 더 재밌어요, 라고 말한다

수학이 학생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뚜렷한 확신 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풀어가기 힘든 문제 중 하나였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학생 한 분이 국어시간은 재밌는데 왜 수학은 재미가 없냐고 질문하

급식은 힘이요 기대요 기쁨이어라~

● 노들야학 성희



저는 노들야학 급식을 담당하는 이성희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중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 하며 나름 교회 봉사, 장애인 돕기, 구제사업, 선교를 중심으로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8년의 중국생활을 뒤로 한 채 2013년에 한국으로 오게 됐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물가도 비싸고 무엇 하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구세군'이라는 자선단체에 취업하게 되었지만 실수로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입고 6주 동안 기브스를 한 채 또다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리가 거의 회복되어 가는 중 우연히 구직사이트에서 '노들야학'이 급식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면접을 통해 급

식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중국 한인교회에서 주방팀장으로 3년 동안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고, 맛을 낼 수 있는 자신감과 경험이 비로소 노들야학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다리골절의 상처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여 기뻐했습니다. 특히 노들야학은 일반단체의 급식과 달리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음식이라 생각하니 일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어 기쁘고 좋았습니다. 또한 평소에 장애인 봉사 단체에 늘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다리골절에 대한 억울함이 결코 우연이 아닌 노들야학에서 나의 달란트를 다하라는 주님의 뜻인 듯하여 음식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밥 먹었냐?"로 정겨운 인사를 나눌 정도로 밥에서 따뜻한 정을 느낍니다. 한국인의 힘은 밥에서 나온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살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는 관계의 시작이고 또 다른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요 기쁨입니다. 특히 노들야학 특성상 장애인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들어 낸 정성스런 음식을 통하여 누군가는 따뜻한 온정을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힘이 나는 그래서 살고 싶은 생명의 한 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급식이 시작한 지 8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급식 또한 온갖 정성과 좋은 식자재를 이용하여 영양은 물론 맛 또한 환상적입니다~ 계절에 맞는 매뉴얼을 통해 맛있는 급식이 매일 제공되고 있고 외부인이 한 번 먹어보면 또 먹고 싶을 정도로 수준 있는 ㅋㅋ 특히 농성장에서 고생하는 야학 선생님들은 너무도 급식을 그리워합니다. 정말 노들야학에서 급식은 모두에게 힘이요 기대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노들야학 급식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를 감수하고도 질 좋은, 맛있는 따뜻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급식을 준비하는 나 역시도 마음이 무겁고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급식비가 없어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친구와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3장을 내밀 때 어쩔 수 없이 받아야하는 제 마음도 편치 않음을 매순간 느낍니다.

속히 무료급식이 이루어져서 야학 친구들이 좋아하는 고기반찬을 맘껏 먹일 수 있는 행복한 날이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명학 자립했습니다

노들야학 명학



2014년 11월 24일 명학이 4년여 동안 기거했던 평원재를 떠나 연건동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겨 진정으로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군요. 이젠 완전히 홀로 자립을 시작하는 즈음, 두 어깨가 무겁고 더 크게 의무감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홀로의 자립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때론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한 반면에 평원재처럼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서로 오순도순 생활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립생활,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자립생활을 하다보면 몸에 익숙해지리라 믿고 홀로 진정한 자립생활을 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소중한 가족도 함께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떠나는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립하는 데 가족들이 살림살이도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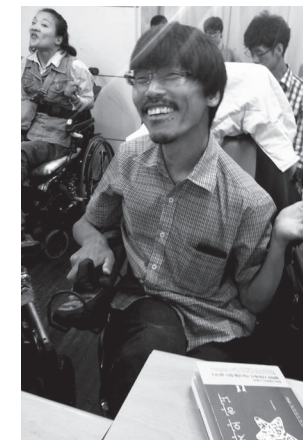
여러분의 기대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자립생활을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길...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부양의무제 폐지가 탈시설·자립생활의 지름길!

노들야학 상윤

나는 석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2009년 6월 2일에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함께 나온 동료들과 탈시설 권리의 보장을 주장하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 달 넘게 노숙농성을 했고, 명륜동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주택 '평원재'에서 임시로 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면



서 알게 된 것이, 부모님이 차를 구입할 때 내 인감을 사용해 나의 명의로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시설에 있었고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보증인이고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머니는 풍이 심하게 와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이 처리를 해주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지원을 해주지도 않았다. 부모님이긴 했지만 나를 시설에 두면서 그저 나의 명의로 장애인 할인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컸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

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매번 탈락했다. 더 웃긴 건 부모님이 실제로는 나를 전혀 부양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렸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나라 나이로 일흔 살이다. 그러다보니 재산이 조금 있다고는 해도 부양할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벌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건지... 우리나라는 법이 잘못되어

도 한참 잘못되었다. 부모와 자식이 인연을 끊거나 하면 그때야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중증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꼭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뭐라도 하는 시늉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어서 빨리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어 좀 더 나은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

장애인에게 승강기가 필요한 이유

노들야학 준수



장애인승강기 필요한이유

Date.

작성년 2013년 7월

그날은 광화문에서

장애등급페이지서명

끝나고 집가기

위 리프트

다고 내려가는데

그만 리프트가

고장으로 서고 말아다

정말 공포 떨러 야만 했고 기기

몇시과 후 지카철 여무원 도움

으로 갈수 있어서

나는 소망한다

장애인승강기 생겨서 광화문

을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E-HWA

팽목항을 다녀왔습니다

노들아학 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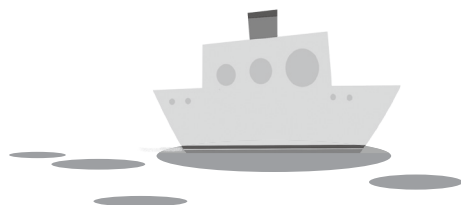
우리가 함께 연대해
그분들의 아픔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졌으면 합니다.



세월호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그 아픔들이 속속들이 피부로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10여 명의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애타는 몸과 마음들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팽목항. 팽목항 앞바다는 어둠에 깊게 잠겨있고 바람과 거센 파도 소리만 들려옵니다.

저 팽목항 앞바다는 저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실종자들의 아픈 마음들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요?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그 수많은 낮과 밤들을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실낱같은 희망으로 팽목항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맘이 뭉클해지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함께해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연대해 그분들의 아픔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 깊이 인식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추신에 추신을 달다

- 인권연극제 참가작품 <추신>을 올리고 난 연출의 변 -

문예관 안수

공연정보

제목: 추신
일자: 2014. 11. 12(수) ~ 11. 15(토), 총 4회 공연
장소: 대학로 소리아트홀
작·연출: 신안수
출연: 문명동, 금민정, 서훈, 서희락, 양수경, 오지영, 김진욱
특징: 제1회 인권연극제 참가작품, 대학로에서 공연함, 신안수가 연출함



인권연극제라니!

그래서 올해도 연출을 맡아버렸다. 2012년에 맡고 나서 두 번째이니 저번보다는 잘 해야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극작도 하겠다고 나서버렸으니 부담이 갑절이 되었다! 그렇지만 남이 쓴 작품으로는 내가 만족할만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으니 어찌랴. 내가 극작을 맡을 수밖에……. 그런데 이번 연극은 무려 '제1회 인권연극제' 참가작품이라 하니 그 부담이 이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그런데 인권연극제에 어울리는 연극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연극제에 올라갈 작품들은 이슈가 될 만한 작품이 올라올 텐데 우리가 만든 작품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동안 장애인문화예술관의 작품들은 '투쟁'이란 단어가 조금씩 지워지고 장애인의 일상 속 갈등을 다뤄 와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온 노들의 정신은 엿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연극제를 기회 삼아 다시 사회 저항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뤄볼 만하지 않을까?

결국엔 또 연출을

(부제: 신안수가 연출을 맡게 되는 과정)

- 1 연출할 사람이 없다.
- 2 내가 연출을 한다.
- 3 한 번 해보니까 못 해먹겠다.
- 4 내년엔 연출 안 해!
- 5 결국 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이 연출을 한다.
- 6 또 한 해가 지난다.
- 7 또 연출할 사람이 없다.
- 8 결국 내가 연출을 한다.

○ 오디션을 보자

그런 고민들을 해오던 2014년 4월, 오디션을 보았다. 그것도 3주에 걸쳐서. 오디션은 오디션인데 떨어지는 멤버는 없다. 게다가 연출도 조연출도 오디션에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한다. 어차피 전원 합격이라 오디션이라기 보단 약간의 긴장감도 가질 겸 공연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미리 맛보는 사전작업에 가깝다.

먼저 조를 짜고, 그에 따라 시, 소설, 노래를 제시하고 조원들끼리 회의하여 다음 주까지 작품을 선보이는 과제를 주었다. 배우들은 썩 훌륭하진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고민해서 작품을 준비해왔고 연극제의 취지에 어울리게 만들어 왔다. 마지막 주에는 전체 평가를 실시했고 이 자리를 통해 배우들에게 두 가지를 실행해줄 것을 부탁했다.

○ 광화문_농성장

그 중 첫 번째로 배우들에게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사회에 저항하는 사람이 될 것을 주문했다. 그것은 이후 광화문 농성장을 종종 배우 공연 연습 공간으로 이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오디션을 마친 이후 우리는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갔다.

농성장 당번으로 문예판 순서가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노들야학이 이를 수업의 일환으로 활용하듯, 우리도 아예 연습의 일환으로 농성장을 때로 물러가기로 한 것이다. 그 중 5월 19일에 농성장

에서 찝막한 퍼포먼스를 하자고 한솔이형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를 구성하고 멤버를 짜고 음악과 의상을 구했다. 그리고 농성장 당번 당일 오후에 농성장에서 두 개의 퍼포먼스를 시간대에 따라 세 번에 걸쳐 선보였다. 광화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역시나 우릴 스쳐지나갔지만 우리의 존재를 모른 척 넘어갈 순 없었을 거다.

○ 인권감수성과_작품성에_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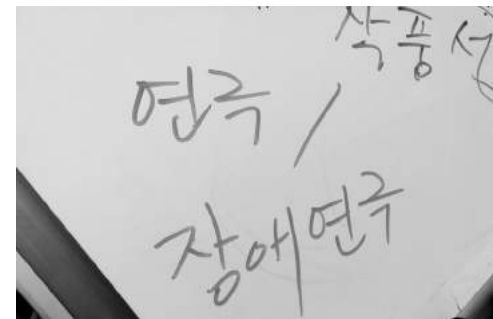
두 번째 부탁으로 인권연극제에 참여하는 김에 각자가 인권감수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동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나이와 성별, 외모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를 서로에게 무진장 많이 쏟아내고 있었다. 게다가 판에 들어온 순서를 가지고 서로의 우열을 매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종종 불쾌감을 가져다주기도 했는데 이번 기획에 그런 문화까지 싹 같아엎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적어나간 것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 여러분이 장애인이 아니고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입니다?
- ② 비당사자를 향한 당사자의 불신 혹은 역차별
 - 넌 장애인이 아니어서 몰라!
- ③ 당사자 내의 차별
 - 중도장애/선천적 장애, 지적장애/신체장애, 장애남성/장애여성 등)

판의 배우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빈곤층의 위

치에 놓여 있지만 공연을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 이들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 인권을 알리는 전달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역시 자신의 인권 못지않게 타인의 인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곳에도 차별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인권의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

다음으로 [장애/비장애], [연극/장애연극], [예술가/장애예술가], [당사자성/작품성] 등의 기준들을 화이트보드에 적어나가며 장애인이 하는 연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연 장애인이 하는 연극은 기존의 연극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의 연극은 혹시 아직도 '연극을 해볼 기회'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극제라는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외부에 우리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실력의



○ 를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주제를_‘추(醜)’로_정하다

큰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 내렸다. 나는 연출의 입장에 서서 배우들 앞에서 화이트보드에 ‘추



할 추(醜)자를 써놓았다. 그러면서 ‘추할 추(醜)자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빼곡히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추할 추(醜)자의 모양새를 보자. 왼쪽에 ‘酉’는 ‘술 주(酒)’의 뜻을 담고 있다. 오른쪽에는 ‘귀신 귀(鬼)’자가 있는데 이는 머리에 각종 장식을 한 무녀의 모습에서 따온 글자라고 한다. 이를 합하여 보면 제단에 술을 따르는 무녀의 모습이 된다. 그런데 신을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지금은 ‘보기 싫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어쩌다 신을 섬기는 행위가 못 생긴 사람을 혐오한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다. 이에 대한 답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편의 영화를 보고 몇 개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되었다. 그래서 다시 판의 배우들을 바라봄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 비틀린 몸, 흉한 몸으로 불리던 장애인의 몸이 ‘추함’을 말하면 관객에게 어떤 파급력을

있을까?



제목을 '추신'으로 정 하다

6월이 되고, 우리는 공연 연습에 돌입했다. 그러나 발성연습이나 신체훈련, 대사 연습 같은 것은 일체 진행되지 않았다. 오

로지 회의 또 회의였다. 머리를 맞대고 줄창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배우들은 연습 안 하냐고 투정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투정을 기물여 듣기보단 내가 과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연극은 배우들을 위한 작업이 아니고 나 스스로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심사가 배배꼬여있었던 건지 나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뭔가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뭔가 속을 남들이 쉽게 알 수 없게 감춰두고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수십 겹씩이나 감싸놓고는 질소포장으로 과대하게 부풀린 것 같았다. 결국 배우들이 만들어온 이야기를 나는 제멋대로 비틀어 같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기본이 나빠지는 이야기로 바꾸어 냈다. 그것을 토대로 나는 장면을 만들고 거기에 배우들이 자신의 입에 맞춰 대사를 만들어냈

다. 욕도 결죽하게 담아냈다.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바와 달리 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연 <추신>은 공연제목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뜻이 다른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보기로 하였다.

피에쓰알러뷰 P.S._I_LOVE_YOU.

위 제목은 <추신>의 제1장의 제목이다. 한 남자가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운의 편지를 읽는다. 그리고는 짜증을 내며 편지의 말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퇴장한다. 행운의 편지라는 것은 사실 행운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라기 보단 7통의 편지를 돌리지 않으면 3년의 불행이 찾아올 거라고 말하는 저 주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알량한 혜택

① 추신(追伸)

- 편지지의 끝에 덧붙이는 말. 영어로 postscript, 줄여서 P.S. 없어도 그만인 문장이지만 사람들을 종종 이런 잉여적인 문장들을 남긴다.

② 추신(醜身)

- 추한 몸. 영어로 ugly body. 외모를 가지고 '미추'를 구분하는 행위들에 대한 생각들.

③ 추신(醜神)

- 추한 신. 또는 추한 정신, 영어로는 weird god, weird spirits 신앙의 우열을 구분하는 종교. 미신으로 치부되는 부두교 좀비나 한국 무속신앙.

이라도 받으려면 끊임없이 위를 향해 조아릴 것을 요구하는 한국사회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게다가 편지문의 끝에는 추신이 달려있는데 '좋은 게 좋고 생각하세요.'라는 말이 남겨져 있다. 이는 또 얼마나 잔인한 문장인가! 다수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건가? 그러나 이 말은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말해지고 있다. 추신(追伸)은 편지지의 끝에 덧붙이는 말이다. 없어도 그만인 문장이지만 사람들을 종종 이런 잉여적인 문장들을 남기곤 하는데 때론 그런 문장 속에 편지문의 진의가 담기기도 한다. 어쩌면 추신은 소수의 의견이 본문 속에 담겨지길 거부하는 사회에서 소수자가 머물 수 밖에 없는 처지인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이제 금민정 배우의 시점으로 넘어간다. '아름다운 여자'를 줄여서 만든 닉네임 '아자'를 쓰는 금민정 배우는 평소에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다며 도끼병 말기 환자스러운 대화를 밥 먹듯이 한다. 그러나 그녀의 외모는 못사람이 보기엔 볼품없다. 공연의 연출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나 스스로의 몸을 긍정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과하게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를 관찰하면서 나는 "과연 못 생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서 못 생긴 여자와의 로맨스를 그렸다는 박민규 씨의 장편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답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읽어보았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되었다. 결국은 그녀에게서 직접 답을 구해보야 할 일이라 종종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그녀의 말들을 곧이듣지 않았고 분명히 내면에는 정반대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실제로 내 추측

대로 그녀의 내면은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히려 다른 배우들 모두는 자신의 몸을 나름의 방식으로 긍정하고 있었다!) 무척이나 연약한 내면을 가리기 위해 그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외부에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 내면의 흐름과 외부의 압력이 제1장 '피에쓰알러뷰'를 만드는 데 큰 토대가 되었다.

이 장면에는 무대 대도구 다음으로 고비용이 들어간 수지 등신대가 열연(?)을 한다. Miss A의 멤버이자 건축학개론을 통해 국민첫사랑의 아이콘이 된 '수지'는 어찌 보면 '아자'와 달리 못사람이 인정하는 미녀다. 수지 등신대 4개는 '아자'와 비교가 되어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왜 하고많은 미녀 중 '수지'인가? 그건 서훈 배우가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이다. 서훈 배우는 수지가 광고하는 비타민음료의 이름을 따서 닉네임을 '비타'라고 지을 만큼 '수지'를 열렬히 좋아한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속 자신이 빛은 조각을 사랑하는 '피그말리온'이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통해 판을 깔아뒀다. 그렇게 첫 장은 사랑받고 싶으나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무생물을 통해 해결하려는 남자가 채우게 된다.

(P.S.1) 이번 공연을 하면서 '등신'이라는 말이 장애인 비하의 뜻이 담긴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병신'이라는 단어와 비등비등한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등신(等神)은 한자로만 보면 '신과 같다'란 뜻을 담고 있다. 사전적 의미는 '나무, 돌, 흙, 쇠 따위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 말은 등신대와 닮았고 그 뜻은 추한 신이

란 뜻을 담은 '추신(醜神)'과 닮은 점이 있다.

(P.S.2) 공연 중간에 영국의 락밴드 '라디오헤드'의 대표곡 'Creep'이 삽입되었다. 'Creep(크립)'의 뜻은 '불쾌한 또는 싫은 녀석'이란 뜻으로 이 곡의 가사는 전반적으로 자기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queer(퀴어)'란 말을 사용하는데 '기묘한, 이상한'이란 뜻으로 매우 자조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맥락으로 장애를 지칭하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creep'이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4서울변방연극제에 참가한 '장애문화예술연구소'도 올해 공연 <프릭쇼>를 통해 비슷한 맥락에서 'freak(프릭)'이란 단어를 제시한 바 있



선거 환상곡

제2장의 제목이다. 이 부분은 실제로 6월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출마했던 김진옥 배우(닉네임 '장미')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장애인도 정치를 해야한다는 신념이 있는 그녀는 장애인문화예술판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정당인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공연 연습 도중에 그녀는 선거운동을 하러 한 달 동안 연습을 불참하게 된다. 선거운동 전후로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시놉시스를 받았지만 사실 나에게 그것들은 썩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소재는 그녀의 출마, 그 자체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선거과정을 퍼포먼스로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것이 곧 제2장 '선거 환상곡'이 되었다.



제1장 말미에 장애로 인해 좌절에 빠져있는 '아자'에게 '장미'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자신의 선거출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게 제2장으로 넘어가 장면은 선거유세 현장으로 넘어간다. 다른 배우들은 상황에 따라 지지하러 온 당원들, 호의적인 시민들, 악의적이거나 무심한 시민들, 다른 구의원 후보들이 된다. 그리고 투표 당일이 되어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는 참패. 1,618명이 그녀에게 한 표 던졌지만, 득표율 4.54%로는 당선은 문턱이 높기만 하다. 그녀의 출마의 뜻은 어땠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선거는 게임'으로 이 판은 '장미'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다수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그녀의 패는 '군소정당'과 '소수자, 약자(장애여성)'였다. 개표 장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정당의 대표색상에 맞춘 종이 각 후보의 투표용지가 된다. 실제 총 득표율에 따라 색상의 비율을 맞춘다. 두 명의 배우가 투표함을 들고 나와서 무대에 쏜다. 이제 앉아서 양대 정당 후보의 표를 무대 양 옆으로 던진다. 다 분류되면 군소정당으로 분류되는 그녀의 표만 가운데에 초라하게 남겨져 있다. 그렇게 나는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었던 배우의 의도를 철저히 배신했다.

이 장면은 그녀가 출마했던 올해가 아니면 다

시 하기 어려운 소재라 생각하여 억지로 집어넣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인들의 평가가 좋지는 않았다.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구성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이 장면이 그냥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ㅋㅋ) 해보니 선거라는 것은 공연에 다루기에 매력적인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장애인 위주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배우로 삼는 공연을 만들게 되면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소재이다.



무전취식의 진실

제3장의 제목이다. 이 부분은 대체로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사천의 착한 사람」¹⁾이란 작품의 플롯을 참고하였다. 이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 사람을 찾아다니던 세 명의 신은 사천 땅을 지난다. 숙소를 구하려고 하나 번번이 거절당하다 마침내 창녀인 '센테'의 집에 묵게 된 신들은 마침내 선한 이를 발견했다며 그녀에게 그 마음 변치 말 것을 당부하며 숙박료로 거금을 주고 떠난다. 센테는 그 돈으로 작은 담배 가게를 마련하지만 빈민들이 가게로 몰려들어 센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거절을 못 하는 성격의 센테는 할 수 없이 교활한 가공의 사촌오빠 '슈이타'로 변장하여 위기를 피한다. 그러다 직장이 없는 비행사 양순과 사랑에 빠진 센테는 그를 돕지만 애정 없이 계산적이기만 한 양순의 태도로 결혼은 좌절된다. 양순의 아이를 임신한 센테는 태어날 아이만을 구하려는 생각에

1) 한국에서는 보통 「사천의 선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 씀.

다시 슈이타로 변장하고 부자 이발사의 재산과 빈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담배 공장을 차린다. 사업은 번창하는데 센테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마을사람들은 슈이타를 공장을 빼앗기 위해 사촌 여동생을 죽인 살인범으로 고발한다. 결국 신들이 재판관으로 나온 법정에서 슈이타는 자신이 센테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착하게 살아나가기 힘들다는 그녀의 호소에 신들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다시 승천한다.

이 중 신들이 찾고자 하는 이들을 '착한 사람'에서 '성실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변경하게 만든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시사N>의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이라는 기사였다. '일베'가 혐오하는 '여자, 진보진영, 호남, 세월호 유가족'은 '일베'의 시선에서 보면 사회에 기여한 바 없이 '무임승차'하여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암체들이란다. 또한 집회와 시위는 '능력만 있다면 살 만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능력 없는 이들의 떼쓰기로 간주된다. 두 번째는 판의 금민정 배우가 평소 SNS에 게재하는 글이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와 같은 말들을 연기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자주 설파한다. 이 말들이 위의 첫 번째의 이야기와 합쳐지면 다음과 같다.

'노력하라. 그러면 달콤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 금민정 배우의 말은 속 빈 강정과 같다. 그녀는 판에서 꽤나 노력파에 속하지만 노력이 현실의 물질적인 삶을 개선시켜주지는 않는다. 그녀는 연기할 때 역할에 깊게 몰입하며 그러한 연기는 관객들을 충분히 감동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반작용인지 지정된 동선을 벗어나버리기도 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 가야하는 부분을 놓치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의 옆에는 항상 1명의 보조자가 매 순간 상황을 확인 하여 그녀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었다면 투쟁을 왜 했겠나.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세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겠다.

제3장은 그리하여 노력파 금민정이 다른 '게으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열심히 노력하여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으나 세상의 편견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그려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故김준혁** 배우가 생전에 동료들과 만든 영상과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현장을 함께 삽입하였다. 결국 극 중에서 **금민정** 배우는 투쟁전선에 참여하고 이내 분노한 신들의 별을 받는다. 마지막에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그녀를 찾아내고 함께 빛으로 향한다.

(P.S.3) 그러나 이번 장은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극중 신으로 분한 양수경 배우는 연속 3주 동안 다른 공연 일정(판의 <LOVE♥LOVE>, 장애인미디어아트 <너의 그림자가 들려>에 판의 <추신>까지!)을 소화해내야 했다. 그런데다가 나의 대본 작업이 늦어져서 최종대본이 공연직전에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결국 그녀는 공연 내내 대본을 숙지하지 못해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내게 연신 미안하다며 침울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수경 배우와 관객들에게 죄송

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P.S.4) 처음 생각대로라면 이번 공연에서는 판의 전매특허인 핀마이크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공연이 될 뻔했다. 그러나 이번 장에 나오는 신의 목소리를 근엄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핀마이크와 음향장비의 도움을 받아 에코효과를 넣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첫 째 날이 아닌 두 번째 공연부터라서 첫날 단체로 관람한 노들 상근자들은 그를 구경도 못 하고 가버렸다.



오징어의_신

제4장이자 마지막 장이다. 그래서 막장이다. (응?) '원빈 옆에 있으면 얼굴이 오징어로 바뀐다'는 자조적인 농담에서 따온 제목이다. '오징어'가 '뭇생긴 것'을 표방하는 말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장면은 이렇게 구성된다. 말끔히 차려입은 이지적인 장애인이 된 문명동 배우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관객들에게 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병신'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려온다. 그 소리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문명동 배우를 주변에서 총으로 살해한다. 이때 기

괴한 소리가 들려오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문명동 배우의 얼굴에 오징어가면을 씌운다. 주술의 힘으로 좀비의 왕(리치왕의 분노?)이 된 문명동 배우는 비장애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할 것을 부하 좀비들에게 명령한다. 이른바 'T-4작전'.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있었던 나치 독일의 인종정책의 일환으로, 안락사를 이용한 장애인 학살 계획이다. 이 작전으로 7만 5천 명에서 20만 명의 장애인이 학살당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비장애인에게 역으로 적용한 것이다. 작전이 실행되면 판의 배우 모두가 나와서 비장애인 관객들에게 총구를 겨눈다. 음향으로는 끊임없이 총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무대가 어두워지면 공연은 끝인다고 잡았는데 실제 실행해보니 마지막이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 들었다. 좀 더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방식을 모색해봐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지막까지 신경쓰지는 못했다.

이 장면을 위해 센터판의 박세영 활동가의 도움을 받았다. 세영이는 공연메이크업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좀비 분장을 주문했다. 문명동 배우는 추가적으로 상처도 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원래대로라면 공연 4일 내내 분장이 되어있어야 했다. 그러나 공연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배우들의 기량이 온전치 못했고 그래서 두 번째 공연까지 분장 없이 연습만 매달렸다. 이제 어느 정도 괜찮겠다 싶어 세 번째 공연부터 분장을 시도했다. 사실 굳이 앞 장면에도 좀비 분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건 상 분장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었고, 이번 공연은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수없이 교체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상을 일일이 만들어 주는 것보다

하나의 가면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 게다가 첫 날과 둘째 날에 분장 없이 가다보니 배우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을 하고 공연에 올랐는데 그것이 공연에서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다. '추(醜)'를 이야기하러 올라갔는데 자신의 '미(美)'를 뽐내려 온 것 같았다.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망 한 톨마저 제거해야 했다. 결국 셋째 날에 화장을 하고 온 배우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화장을 지우고 분장을 새로 하게 했다. 그렇게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니 마지막 장을 위해 마련된 분장이 다른 장과 어울려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다.

추신의_추신의_추신의_추신에_사족을_달다

(P.S.5) 어찌하다보니 연출의 변이 너무 길어졌다. 실력이 부족하면 이렇게 변명만 늘어난다. 그래도 이번 공연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연출할 수 있어 즐거웠다. 배우들 또한 즐거운 작업이었는데는 모르겠다. 품평회를 가졌지만 우리는 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언제쯤이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계속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P.S.6) 이번 공연을 통해 장애인문화예술판에게 있어 '정기공연'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정기공연'이라는 말은 그 극단에게 있어 최고의 역량이 투여되는 공연일 텐데 그러한 공연은 1년에 공연을 1~2번밖에 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이다. 지금처럼 하반기에 수많은 공연을 치러야 한다면 우리는 '정기공연'에 최고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추(醜)란 무엇일까?

- 인권연극제 참가작품 <추신>, 공연이 끝나고... -

문예관 민정

역량을 쏟아 부을 수가 없다. 이젠 그만한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P.S.7) '추(醜)'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세 번에 나눠 공연을 해볼까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후를 생각하고 소재들을 분산할 바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모두 하고자 이야기를 다시 하나로 합쳤다. 일단 이 한 번의 시도에 따른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역량을 키운 뒤 다음이 주어졌을 때 좀 더 다듬

어지고 좀 더 날카롭게 만들어보자고 다짐해본다. (P.S.8) <추신>을 올리기 2주 전에 판에서는 <LOVE♥LOVE>라는 공연을 올렸다. 강진희 선생님이 대본을 쓰고 연출하셨는데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공연을 올리기 바로 전에 보니 첫 장의 제목이 '아름다움'이었다. 앞으로도 판의 공연은 '아름다움'을 짓는 작업과 '추함'을 짓는 작업이 병행하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본다.



추(醜)란 무엇일까?

추함, 추하다, 추에 관한 기억들...

꺼내기 싫고, 기억하긴 더더욱 싫은 그 '추함'이란 존재...

왜 하필 연출님은 수많은 주제들 중에 '추(醜)'를 꼽으신 걸까??

"아, 싫다, 싫어..." <추신> 공연은 처음 시작부터 그다지 맘에 들진 않았습니다. 뭐..., 준비하는 기간 내내 회피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너무 너무 많았지요.

왜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어 나를 더 아프게 하실까? 굳이 잠자는 나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 내어 다시 또 이토록 괴롭게 하실까? 우린 충분히 힘든데 말입니다. 이번 연극은 판에 와서 한 연극 중 가장 특이한 연극이었습니다.

진심 미치도록 아픈 연극, 어쩌면 관객들은 더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픔과 마주해야 한다는 슬픈 현실이 더욱 불편하게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각자 다른 삶, 하지만 장애인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우리에게 '추함'이란, 정말 꺼내기 싫은, 내비치기 버거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겠지요, '난해하다'고.

맞습니다. 이번 공연 <추신>은 준비하는 내내 각자가 너무 아파야만 했기에 그게 다 보여진 것이라면 난해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런 '추한 몸(?)'이라도 세상에 내보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장애와 마주하다 장애인미디어아트 「너그들」 이야기

● 센터관 민경

나에게는 두 번째 장애인미디어아트 공연인 「너그들(너의 그림자가 들려)」을 마치고 조금씩 그 여운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쯤 유미 선생님께서 카톡이 날아왔다. ‘민경 씨, 『노들바람』에 글 써주세요. 「너그들」 공연이야기요. 제가 본 민경 씨 연기가 인상 깊어서요.’ 얼떨결에 쓴다고는 대답을 했지만, 난 내 연기가 뭐가 인상이 깊었다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웬지 어색해서 물어보지는 못한 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너그들」은 작년의 「꼴」이란 공연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라주 형식의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다만 「꼴」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객관화하거나 각색하지 않은 채 온전히 전달하고자 했다면, 이번 「너그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일정한 각색을 통하여 좀 더 작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 달랐던 것 같다. 작년 「꼴」 공연의 주제는 ‘나의 몸’이었다. 장애에 대한 내 마음속의 갈등을 은아 언니와 함께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했었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난다. 말로는 나의 장애와 직면하기 위해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다. 막상 내 몸의 움직임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려니 겁이 났다. 장애인문화예술관의 공연 「공상의 뇌」 작품에서 겪었던 힘든 기억을 풀어내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아직 나의 장애를 정면으로 바라보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시간이 마냥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고 공연은 올려야 했기에, 힘들음 참고 공연에 임했던 것 같다. 그래서일까? 나 자신도 「꼴」이란 작품을 온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올해 다시 격주 일요일마다 작품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다. 초반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중증도 경증도 아닌 애매한(?) 장애를 지니고 있

충분히 소극적이었던 나의 아픔과, 또 과거의 약한 나와 마주한다는 것, 사실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준비 기간 내내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또 연출님께 철저히 솔직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선 모든 게 보여진다는 말이 있듯,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더욱이 우리 공연에서만큼은 더 그랬습니다. 충분히 아파야만 했던 시간들... 사회도, 또 우리 각자도 그 아픔들이 마치 속명인양 받아들이고, 속으로 응어리진 채 끓어야만 했던 순간들을 그대로 보이고자 했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해했지만 그게 사실이며 현실이라는 어쩔 수 없는 오늘을 살며, 우리는 살아야 하기에 ‘추신(醜身)’과 마주한 것입니다.

한 번쯤은 마주해야 했을 나의 추한 몸, 애써 하는 부정이 아닌 더욱 떳떳하게 많은 이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커다란 치유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면 안드러 말처럼, 그때 공연을 준비하며 아프고 힘들었던 각자의 마음이 진정 아픔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그로 인해 더 강인한 내가 되었음을 느끼게 되진 않았을까요? 이젠 우리, 자신에게 쓰는 편지 말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P.S. I love you.

‘아자’는 ‘아름다운 여자’를 줄여서 만든 말로
금민정 배우의 닉네임입니다.



내가 울었던 이유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인 것 같다.

는 나의 현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보다 표현이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장애가 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내가 있었다. 그렇지만 난 올해는 되도록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워크숍에 빠지는 일도 있었고 종종 시간을 여기기도 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다른 팀원들에게 많이 미안하다. 이 글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총연출을 맡은 분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다.

그렇게 슬렁슬렁 워크숍에 참여했지만 작품의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일을 글로 써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처음엔 나 대신 나리에게 혼자 연기를 하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조연출인 라나가 같이 참여하여 나와 나리의 경험을 일정한 흐름을 지닌 이야기로 만들어 주고 노래 가사도 다듬어 주었다. 작품을 보면 화상을 입고 옷을 갈아입는 장

면부터 이야기의 전개가 바뀌게 된다.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2인 1역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나의 경험인 화상 입는 장면은 내가 직접 연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 부분부터는 나리가 하기로 말이다. 연습을 하면서 감정이 잘 잡히지 않아 알게 모르게 많이 위축되고 겁도 났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노래도 불러야 하는데,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나 컸다. 내가 누구나 다 아는 박치이기도 하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나리가 연기를 했던 가사여서 감정을 이입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보다 우리 작품이 왠지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아 마음 한 편이 쓸쓸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공연 날짜가 다가왔다. 공연 전날, 리허설을 하는 동안에도 무대 동선을 맞추고 수정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리허설을 하면서 나리가 옷 갈아입는 장면을 무대 뒤에서 정확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 뭔지는 정확

히 모르지만 연습 기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나리는 자신을 열심히 표현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떨리는 첫 공연 날이 되었다. 첫 공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노래를 겁나게 못했다는 것, 웨딩드레스를 갈아입을 때 무지 힘들었고 나리가 옷 갈아입을 때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수정 언니의 울음에 좀 놀랐다는 것 등이다.

둘째 날 공연이 올라가기 전 리허설을 하는데 나리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에서 평소보다 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나리가 어깨에서 말린 옷을 못 내리는 것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 그러면 안 되지만 “잠깐만요, 끊어서 갈게요.”라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리에게 약간 화를 냈던 것 같다. 나리아~ 정말 미안. 그렇게 리허설을 마치고 본 공연에 들어갔다. 수정 언니의 작품을 보다가 언니가 울먹이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그 다음이 내 차례였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을 추스르고 무대에 올랐다. 내가 연기를 맡은 부분이 끝나고 나리의 부분이 시작되었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에 결눈질로 슬쩍 슬쩍 보니 다행히 리허설을 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나리의 연기도 끝나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으로 넘어갔다. 나리가 노래를 부른 후 다시 내 순서가 되었다. 무대 앞으로 나서며 노래의 시작과 동시에 나리를 쳐다보는데 왈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참으려 할수록 더 흘러나오는 눈물 탓에 안 그래도 못 부르는 노래를 더 망치고 말았다. 그렇게 두 번째 공연에 이어 마지막 공연까지 어쨌든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다.

공연 뒤풀이 시간에 사람들이 내가 울었던 이유를 많이 알고 싶어 했다. 내가 울었던 이유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인 것 같다. 나리가 연기하는 부분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을 때, 그 힘들어 하는 모습이 나를 떠올리게 했다. 웨딩드레스를 갈아입을 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보니 미안함과 고마움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서러움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앞 무대에서 수정 언니의 울먹임도 한 몫을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이번 장애인미디어아트는 나의 몸과 장애를 새롭게 마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다.



우리들의 러브~러브!

문예판 수경

2014년 10월 30일 충무아트홀에서 상연된 「러브러브」는 장애여성 당사자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한, 그야말로 장애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이다. 사람들은 흔히 장애인을 무성의 존재로 취급하지만, 우리들도 당연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진실한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장애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가족 내에서조차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집안에 큰 행사가 있거나 가족들의 손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져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져야 하는 아픈 현실.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냉대가 가장 큰 고통임을 가족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공연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나보다. 가족들이 와서 보고는, “이렇게 멋진 공연인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은 지인들과 왔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다. 이전에는 늘 번두리 공연장이나 접근성이 어려운 좁은 장소에서만 공연을 해왔었는데, 충무아트홀이라는 번듯한 무대도 우리의 공연을 더 빛내주었던 것 같다.



사실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이번 공연을 잘 치러내야만 앞으로 2년간 지원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책임감에, 서로 시간을 맞춰가며 휴일도 마다 않고 모여 연습을 했다. 그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까지 주말에 출근을 해야 했지만, 우리들의 열성에 싫은 기색 없이 호응해주셨다. 결코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기에 서로를 다독이며 하나가 되고자 노력한 결과, 비로소 우리는 진심어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이제는 그 어떤 무대와 관객 앞에도 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라는 용기를 얻었다.

3년간 연극을 하면서 무대에 올린 모든 공연이 나에게 소중하지만 이번 연극만큼 성과가 큰 작품은 처음이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단 한 번 1시간 30분의 공연으로 끝나야 했던 것은 아쉬운 마음이 크다. 우리는 더 소리쳐야 하는데,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하는데... 2014년은 그렇게 벅찬 기쁨과 얼마간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지나갔다. 2015년에는 어떤 무대로 사람들의 가슴에 우리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까?

♥ 난 지금 꿈꾼다. 올해에는 더 멋진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할머니의 꿈」 촬영 노트

노들야학 민구



- **기획/대본/연출:** 민구, 지예
- **촬영:** 승천, 신행
- **편집:** 호경
- **주연:** 경석, 사랑
- **도움 주신 분들:** 은혜미용실 원장님, 혜화역 1번 출구 앞 노점 아저씨, 예준 엄마 황혜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줄거리:**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경석이 머리를 기르면서 승승장구한 장애인운동. 그러던 어느 날 하얗고 긴 머리카락 때문에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된 경석은 화가 나 머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선언한다. 경석이 머리를 자르면 장판에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앞으로 큰일이 날 것이라며 안 보이는 학생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 같은 시각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데...

러닝타임 17분, 단편영화 「할머니의 꿈」은 마을미디어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작품 준비는 여름부터 했지만 실제 촬영은 11월 말, 일주일 만에 후다닥 이뤄졌다. 번갯불에 콩은 이렇게 구워 먹는 것이다! 느낌으로?!

「할머니의 꿈」은 많은 노들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 주연 배우를 뺀 나머지 배우는 대부분 촬영 당일엔 섭외했다. 장소 역시 당일 섭외. 이렇게 해서 뭐가 되려나 싶기도 했지만 호경 샘의 눈부신 편집으로 길가에 구르던 ‘개똥’이 ‘약’이 됐다. 지면을 빌어 호경 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꾸벅.

「할머니의 꿈」은 마을미디어 시상식에서 인기상을 거머쥐었다. 카르르. 시상식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리플릿에 「할머니의 꿈」은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로 소개됐다. 사실 주최 측의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다큐멘터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420장애인권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니 영화가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보길 권한다. 안 보면 남만 후회할 거다. 벼락치기 촬영이긴 했지만 재밌었다.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도 남았다. 아래, 재미난 에피소드만 추려봤다.

1. 동네 꼬마아이와의 만남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래?”,
“췌!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영화에서 격렬했던 집회를 마치고 야학으로 들어오는 길에 경석이 듣게 되는 말이다. 아이의 눈에는 경석의 휠체어 탄 모습이 신기했겠지만, 경석은 ‘할머니’라는 말에 더 기분 나빠하며 씩씩 댄다.

이 대사는 ‘할머니’라는 단어만 빼면 실제 교장샘이 들었던 말이다. 교장샘은 해병대를 제대하던 해인 1983년 8월, 경주 토함산에서 열린 제1회 전국대학생행글라이딩대회에 참가해 토함산 하늘을 날다가 추락



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일요일이었던 사고 당일, 교장샘의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교회에 가자며 그의 손을 잡아끌었지만 교장샘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행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한다. 그래서 교장샘은 스스로 엄마 말을 듣지 않아 장애인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2. 첫사랑과의 조우

커피 내기 가위바위보에서 진 경석이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첫사랑과 조우한다.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에게 경석이 "옛날에는 굉장히 예뻐는데 지금은 쭉그렁 방탕이가 다 됐네."라고 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첫사랑 그녀는 경석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대며 말한다.

"뭐라고? 쭉그렁 방탕이? 쭉그렁 방탕이가 뭐야, 오랜만에 만나서, 너는 뒤에서 보면 영락없는 머리 하얀 할머니 장애인이야!"

이 장면에서 나온 경석의 첫사랑 역할은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선옥 소장님이 해주셨다. 촬영 당시 회의가 있어 노들에 오셨다가 캐스팅되셨다. 말하자면 길거리 캐스팅인 셈이다. 섭외할 때는 연기를 못한다고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막상 샷이 들어가자 폭풍 연기를 선보인다. 기가 막힌 캐스팅이다. 당시 대본상으로는 첫사랑과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자 대뜸 교장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흔들며 댄다. 몇 번의 NG가 이어지자 (내가 봐도 불쌍했음) 머리가 아팠던 교장샘도 진심 죽기 살기로 방어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리얼이다. 덕분에 좋은 장면을 얻을 수 있었다. 신선옥 소장님 땡큐!!

3. 미용실을 찾아 나선 경석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미용실을 찾아 나선 경석.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미용실을 발견하지만 휠체어 접근이 안 된다. 온통 계단뿐.

"온통 계단이야 계단. 이씨! 공구리를 확 쳐 뿌까. 이씨!"



실제로 대학로에서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미용실을 찾기로 하늘에 별 따기다. 미용실뿐만이 아니다. 대학로에 천지뽕까리로 널린 게 술집과 밥집이지만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곳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노들약학 뒷마당이라 불리는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도 휠체어 접근이 힘들다. 야외무대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다. 노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끝이란 말인가. 안 되겠다. 직접행동에 나설 때이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계단에 시멘트를 바르는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그리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렸다. 바로 입질이 온다. 종로구청 담당부서에서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마음 약해진 우리는 시멘트 대신 뽕망치에 물감을 묻혀 계단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대체를 했다. 지금 야외무대는 경사로 공사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역시 우리의 실천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을 모색. 대학로에 타깃은 차고 넘친다. 그 중 두 번째 타깃으로 선정된 행운의 장소가 바로 영화에 나오는 그곳이다. "이씨! 공구리(콘크리트를 이르는 속어)를 확 쳐 뿌까!"라는 말은 그냥 말뿐인 말은 아니라는 말이다(이게 무슨 말이야...).

4. 성신여대역 승강장 간격

경석이 머리카락을 자르러 나섰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랑은 승천에게 지금 안 보이는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제촉한다. 동림에게 전화를 한 승천. "형 지금 어디예요?", "지금 성신여대역인데요", "성신여대요? 거긴 단차 간격이 넓잖아요. 빨리 야학으로 들어오세요." 결혼기념일 데이트 약속이 있던 동림은 전화를 끊고 승천의 말을 무시한 채 지하철에 오른다. 이때! 동림의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빠지며 헛돌기 시작하는데...



2013년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는 한 시각장애여성이 지하철을 타려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신여대입구역은 이전부터 승강장에서 열차까지의 간격이 넓고 단차도 매우 커 장애인의 안전사고가 항상 우려되었던 악명 높은 역사이다. 특히 사고 지점의 간격은 무려 17cm나 돼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약자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성신여대입구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며칠 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소속의 한 활동가가 홍대입구역에서 내리다 발이 빠지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듯 비장애인이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승강장의 간격과 단차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촬영을 했다. 그리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의도할 수도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동림이 형의 휠체어 뒷바퀴가 승강장 사이의 넓은 틈에 빠지며 헛돌기 시작한 것이다. 촬영을 하면서도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 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살짝 쾌재를 불렀다는^^;

5. 횡단보도 건너는 애경

야학 수업에 늦어 급한 마음에 전동휠체어 속도를 높이는 애경. 마침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인다. 급한 마음에 전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돌진하는데, 그녀의 앞에 턱 하나가 버티고 있다. 아뿔싸! 뒤늦게 턱을 발견한 애경은 급정지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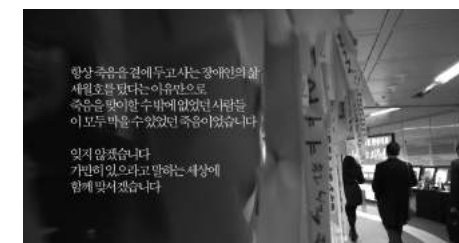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장면이다. 실제 주인공은 노들야학 청솔2반에 재학 중인 남옥 누나. 몇 달 전 같은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턱 하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진하는 바



람에 휠체어채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앞니 3개가 심하게 흔들려 임플란트를 했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했다. 횡단보도에 있는 작은 턱 하나, 그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천 길 낭떠러지일 수도 있다.

6. 송국현 동지의 죽음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미용실에서 돌아 나오는 경석과 사랑. 이때 울리는 카톡.
[전장연-부고] <자립생활의 꿈을 안고 시설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송국현 동지가 집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활동보조인만 옆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장례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



실제로 24년 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다가 자립생활을 꿈꾸며 시설에서 나온 송국현 씨는 일상생활에 활동보조인이 필요했지만 장애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는 장애등급 재심사와 긴급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애등급심사센터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리고 사흘 후인 2014년 4월 13일, 송국현 씨는 홀로 집에 있다 화재 현장을 피하지 못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고 4월 17일 끝내 숨을 거뒀다.

~~~~~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사는 장애인의 삶.  
세월호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세상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꿈.

# 부릉부릉 차차차 7박 8일 이야기

노들아학 명희

11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 무제폐지 공동행동이 7박 8일 전국 순회 투쟁단 차차차('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와~\* 하늘은 맑고, 바람은 쌩쌩!! 차차차!! 모든 차별을 걷어차는 출정식에 희망연대노조 씨앤엠(C&M)지부 동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작년 마지막 날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사용주와의 극적 타결로 고공농성을 접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지요.



씨앤엠분들의 잘 다녀오라는 인사 덕분인지 더욱더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차차차는 20명의 장애인\*비장애인 친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울지역의 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노들장애인아학 그리고 빈곤사회연대에서 신청을 받아 2차례의 기획회의와 공동행동의 집행위 회의를 통해서 촘촘히 실무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뒤풀이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 부산에 도착, NH공사의 마구잡이식 개발에 반대하는 만덕 지역에 갔습니다. 부산에서의 첫째 날은 함세상센터에서, 다음날은 만덕사랑방에서 잠을 청했지요.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주 한옥마을 선전전, 한일장신대학교에 재임하고 있는 자립원 대표이사 김훈 교수 규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릉부릉 자동차는 경산으로 달려가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수용시설 규탄 집회를 벌이기도 하였죠. 일정이 끝나고 대구 동지들과 함께 찜닭을 저녁으로 먹고 경산 동지들과도 뜨거운

부산에서의 날들을 마무리하고, 하루 반나절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사랑방 '와락'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만난 쌍용자동차 해고자 고동민 동지의 짝궁 이정아 님과 와락 식구들이 준비한 김 풀풀 나는 닭도



리탕을 잊지 못합니다. 유난히, 닭친구들과 함께했군요. 평택에서의 마지막 아침 일정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진행한 출근 선전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 대신해줄 사람 없는 이 투쟁을 2000일 넘게 해나가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동지들이 더욱더 빛나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곳곳이 살아가야 겠구나,를 다짐해 봅니다. 쌍용자동차에 일하고 있

는 많은 노동자들이 광화문공동행동이 드린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셨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서명과 모금을 해주었습니다.

전국 순회 투쟁단 차차차는 4대의 봉고로 전국을 순회하며 많은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7박 8일 동안 함께했던 스무 명의 친구들과 보냈던 그 일상이 앞으로도 마음 군데군데 많이 남아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과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와락, 안아 주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길, 그리고 우리 곧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진보적 장애인언론 <비마이너>에 연재돼 있습니다.

# 내가 만난 진심들

▶ 장애인인권교육 강사 제은화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하면서 노들을 알게 됐고, 1년쯤 되었을 무렵 우연히 '인권강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강의를 나갈 생각보다는 인권이 뭔지 공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연극치료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인권강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한 나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 두 시간 안에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하는 일이 어찌 쉽게 느껴질 수 있겠는가.

운 좋게 강의 경험이 있는 언니와 짝꿍이 되어 강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가장 처음 한 건 '서로에 대해 알기'. 나는 어떤 일을 하든 함께하는 사람과의 궁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서로 친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 처음 만난 짝꿍 언니에 대해 아는 게 없었고, 서로 기본적인 성향을 알고 맞춰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을 작성한 뒤 짝꿍 언니의 집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눴고, 밖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서로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행히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통하는 것이 더 많았고, 어렵지 않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강의안을 공동으로 완성했고 첫 강의를 나가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걸로 보기와는 다르게 좀 예민해서 공연이 있는 날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첫 강의날도 왜 그렇게 긴장이 되던지 결국 밥을 먹지 못했다. 대신 강의를 끝나면 먹으려고 김밥 한 줄을 사서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사람들을 기다렸다. 강의할 때 할 말들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말이다. 그런데 대박! 장애인콜택시가 계속 연결되지 않아 짝꿍 언니가 학교에 못 올 것 같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장애인콜택시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결국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 들어 (예민이고 나발이고) 김밥을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눈물 젖은 빵에 버금가는 이판사판 김밥이랄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장애인

콜택시가 극적으로 연결됐다는 연락이 왔고, 언니와 함께 무사히 첫 강의를 마칠 수 있었다.

첫 강의를 끝나고 우리끼리 피드백을 나누던 중 짝꿍 언니는 “은화 씨,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조금 과도하게 하나하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자각했다. 연극치료를 할 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질문을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왔던 것이었다. 그렇게 첫 강의를 발판 삼아 우리의 강의안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고, 이제는 제법 호흡이 잘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다. 사실 요즘은 강의를 많이 않은데도 짝꿍 언니에게서 가끔 연락이 온다.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찾아서 보냈으니 읽어본 후 의견을 달라고 말이다. 짝꿍언니가 이렇게 열심히니 나도 자극을 받게 된다. 평소 관심이 있던 여성인권에 관한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눈다. '이렇게 같이 발전해가는 거겠지'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어 여러 의견들을 공유하는데 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

나는 인권강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어떠한 큰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세상에 계단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혹은 '차별받는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 많구나'와 같은 생각만 해주어도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권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진심들을 만나게 됐다.

어느 날은 강의 내내 열심히 경청을 하고 대담도

잘하던 학생이 마지막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강의는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그 학생이 다가와서 무언가를 내밀었다. 우리(나, 짝꿍 언니, 활보선생님)를 그린 그림과 '꾸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아름다워요'라는 문구—마치 시와 같은!—가 적힌 종이 한 장이었다. 우리가 교실을 나서기 전에 전해 주려 부랴부랴 공책을 자르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던 모양이다.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보이는 법일 테지. 짝꿍 언니와 나는 그날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이러한 진심어린 감동을 받아본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질문 시간에 갑자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집에서 막내인데, 언니와 오빠를 포함한 가족들이 자신의 말에는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집에서 제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일단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해주었다. 그날 강의를 끝나고 짝꿍 언니와 그 학생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짝꿍 언니도 자기의 고민을 직접 얘기하는 학생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6학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왜소한 체구의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불쑥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저도 장애는 아니지만, 병이 있어요.” 대뜸 그렇게 말한 탓에, 나는 “아, 그렇구나.”라고만 일단 대답을 했다. 쉬는 시간이라

#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전규찬·박래군 지음, 문주 출판,

2013

노들센터 지에



죽지 못해 살았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죽지 못해서 살았고 남겨졌다.

억울하다.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억울함이 절절한 책,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전규찬·박래군 지음, 문주 출판, 2013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내더니 왜 그랬냐고 소리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인지, 왜 혼나야 하는 건지 물어볼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다 선생님은 나를 밀어 버렸고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참 억울했다.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난다. 담임선생님의 그 찌한 눈썹 꼬리가. 그 날은 하루 종일 멍했고 자신이 없었고 불안했다.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 친구들은 날 어떻게 봤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영문을 모른 채 당한 하루의 폭력이 이후 며칠 동안 나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떠올리니 새삼 억울해진다. 이렇게 폭력의 기억은 20년이 되도록 닳지 않고 여

전히 남아 있다. 만약 그 담임선생님이 나중이라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건대, 적어도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다.

책 살아남은 아이는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는 수용시설의 민낯을 낱낱이 고한 책이다.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피해자 한종선 씨의 아주 얇은 기억부터 그곳에서 누나, 아버지까지 만난 절망의 기억까지.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고역일 수 있을까... 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싶었다. 세상 참 고약스럽다 싶었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잡혀”들어갔다. 길을 잃은 아이가 파출소에 맡겨져서, 동네에서 놀던 꼬마가, 막차를 놓쳐

교실이 다소 산만하기도 했고, 그 학생이 어느 정도 까지 말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 눈치를 조금 살피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다. “뼈가 약해서 잘 자라지 않는 병이에요. 병원에도 다녔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병원에 다니는지 물으니 “병원에 입원했다가 2주 전에 다시 학교에 왔어요.”라고 대답했다.

사실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건네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OO이는 약간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학기 초반에 너무 우울해해서, 제가 부회장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줬고 지금은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열심히 하라고 뽑아줬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선생님들 옆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건, 선생님들이 좋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라고 따뜻한 말투로 반 친구에 대해 설명을 해준 학생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장애인이에요.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라고 말한 학생, 강의 내내 장난스러운 말투로 웃음을 주었다가 갑자기 “저희 둘째 누나도 장애인이에요.”라는 말만 던지고 가버린 학생까지.

나는 이러한 모든 반응들을 ‘내가 만난 진심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연극치료로도 상대방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신뢰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공을 들이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내가 만난 진심들’은 진솔한 자신들의 이야기였고, 수업시간에는 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처음 만난 우리에게 해주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

사한 일이다. 우리의 진심도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닐까 싶고, 그만큼 또 어깨도 무거워진다. 강의를 나가는 날이면 ‘네까짓 게 뭐라고 인권에 대해서 아는 척 강의를 하나’라는 걱정이 밀려오기도 한다.

앞으로 이렇게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면

‘내가 만난 진심들’을 떠올릴 것이다.

무거워진 어깨만큼

내가 꺼안은 진심들도 많아질 테니 말이다.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 ‘단풍이 만드는 안경이야기’ 단풍을 만나다

노들야학 민구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에 작은 안경원이 있다. 간판에 작은 글씨로 ‘단풍이 만드는 안경이야기’라고 쓰여 있다. 말 그대로 ‘단풍’이 만드는 안경원이다. 이곳 주인장은 조금 독특하다. 그는 안경원에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님이 찾아 왔을 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눈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는 안경점이 아닌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후원인 ‘단풍’이다.

단풍은 안경원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던 안경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경사가 여러 시력 검사 후에 손님에게 안경을 맞추어 주거나 파는 곳’이다. 이 대목에서 단풍이 생각하는 안경원은 ‘파는 곳’이 아니라 ‘시력검사’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다. 그는 손님의 눈 상태를 꼼꼼히 검사하고 그에 맞는 안경을 추천해준다. 그렇

게 세심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구나 단풍 혼자 일하는 작은 안경원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게 달갑지 않다.

인터뷰를 위해 단풍을 찾아 갔지만 님도 보고 뽕도 따면 좋지 않은가. 이왕 안경원에 온 김에 나도 안경을 새로 하기로 했다. 평소 무던한 성격의 나이기에 렌즈에 흠이 너무 많이 나서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일 때쯤 안경을 바꾼다. 이런저런 시력검사 결과 내게 적지 않은 난시가 있다고 한다. 렌즈를 주문해야 해서 이를 후에 택배로 안경을 받아 보기로 한다.

난 어린 시절 TV 만화 「스머프」를 즐겨 봤다. 그리고 여러 스머프들 중 뽕뽕이 스머프를 좋아했다. 매일 안경을 쓰고 벗는 일상이 재밌어 보였다. 잠들기 전 안경을 벗어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 더듬 더듬 제일 먼저 안경을 찾아 쓰며 하루를 시작한다.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뽕뽕이 스머프의 일상이 왜 재밌어 보였을까? 모를 일이다.

여하튼 난 눈이 나빠지기로 걱정하고 일부러 텔레비전을 가까이에서 봤다. 아, 철없는 아이여... 결국 눈이 나빠진 나는 어린 나이부터 안경을 쓸 수 있었다. 그 결과 20여 년을 안경잡이로 살아왔다. 참, 내가 이 대목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안경을 갈아치웠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안경을 택배로 받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안경은 그

부산역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가, 그리고 또 누군가는 형제복지원의 자자한 소문을 듣고 제 발로 걸어들어가기도 했다. 집 주소를 기억하고, 엄마 아빠 이름을 기억하고, 본인의 이름을 외울 수 있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표에는 고아, 주소 미상, 가명이 적혀질 뿐이었다. 이중, 삼중으로 된 철문이 열리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리는 물매를 매일같이 맞았다. 집에 가고 싶다고 울어서, 밥을 흘리고 먹어서, 썩은 김치를 남겨서, 줄을 똑바로 맞춰 서지 못해서, 성폭행으로부터 저항해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해서, 기합을 너무 잘 받아서. 그들 존재 자체가 맞을 이유가 되었고, 그게 그들의 유일한 일과였다.

### 국가가 만든 지옥 속에서 여전히 산다

한중선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형제복지원에 멈춰있다는 것을 괴로워한다. 다른 이들과 달리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싶는데, 형제복지원에서의 지옥 같은 악몽이 훨씬 진하기 때문이다. 어린 한중선 씨는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바람으로 형제복지원에 맡겨졌다. 곧 데리러 온다는 아버지 말만을 믿으며, 형제복지원 지옥에 살았다. 그러던 누나는 형제복지원의 폭력으로 정신장애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됐구나! 기뻐할 틈도 없이 뒤이어 들려온 “잡혀왔다”는 말을 듣고 표현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다.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 절망의 나락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중선 씨 세 명의 가족은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는 1987년이 되어서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다시 별

뿔이 흩어졌다.

형제복지원은 지옥이었다. 그럼 이 지옥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 책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복지원은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깨끗한 거리, 구걸을 하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부모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이를테면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치워져야 할 쓰레기였던 것이다. 두당 얼마. 형제복지원 원장은 쓰레기 처리 값을 톡톡히 받았고, 여전히 사회복지사업을 하며 살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국가가 만든 지옥이다. 경찰이 있었고, 부산시가 관리감독했고, 복지부에서 지원받았다.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상황을 알고 원장을 법적으로 처벌하려 한 검사도 있었지만, 법원은 원장의 죄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은 그렇게 국가가 허락한 지옥이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중선 씨에게 위험한 사람들은 격리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는다. 중선 씨는 대답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길에 쓰러져 있는데 도와 달라고 손을 내민다면, 그때는 도와주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지원 사건이 그랬고, 도가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 달라고 소리쳐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살아남은 아이,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자리에서 똑딱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난시가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다. 이에 대해 단풍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그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준다.

렌즈의 종류는 제조업체별로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큰 안경원이라도 모든 렌즈를 구비해 놓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 경우처럼 안경원에 없는 렌즈가 필요할 경우에는 업체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며칠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20년을 안경잡이로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안경원에서 손님에게 렌즈가 없으니 며칠 기다려달라

고 하면 '홍치뽕, 안경원이 여기뿐인가!'하고 다른 안경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구비하고 있는 렌즈로 맞춰줬을 것으로 예상, 추측, 짐작된다. 허, 이럴 수가. 언빌리버블! 실제 내가 쓰던 안경의 렌즈를 보니 난시용 렌즈가 아니었다.

단풍은 '안경은 패션이다.' '안경은 얼굴이다.' '안경으로 성형 하세요.'와 같은 광고를 싫어한다. 이렇게 떠벌리며 안경 팔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안경점'을 싫어한다. 그가 바라는 '안경원'은 안경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꼭 맞는 안경을 받고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자, 각설하고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 보자.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어떻게 하죠? 어색하네요. 옛날에 '대자보'에 있을 때 인터뷰는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당해본 적은 없어서... 그냥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단풍이라고 합니다.



서 또 만나게 되고. '피엘송'이라는 민중가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420투쟁할 때 회비 5만원 내려고 이름도 올리고. 혼자 있다 보니 몸을 움직여 참석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왔죠.

**Q** 노들센터를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노들센터를 후원하게 되셨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장판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요?

**A** '대자보'라는 인터넷신문사에 있을 때, 오달이랑 친해지고 이러면서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립회관에 취재를 나가서 곰두리 봉사단한테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헉!)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직장생활하면서 속 멀어졌다가 인연이 돼

저는 저에게도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라는 것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에 씨나 민구 씨도 안경만 없으면 장애가 바로 생기잖아요. 저는 안경 쓴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상버스 투쟁이나 지하철 투쟁, 편의시설 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운동이 많이 잘되는 게 좋아요. 제가 술 먹고 팔라가 되면 장애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실 때는

첫차 타고 집에 들어가곤 하는데, 지하철역에 계단이 너무 길어요. 정말 너무 힘든 순간에, 거의 기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때 있던 엘리베이터가 나한테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운동권 출신이고 하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장애운동이라는 것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편해질수록 다른 사람도 같이 편해지게 되는 거고, 장애인의 권익이 나의 권익과 다르지 않고, 나도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더 많아지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장애운동 쪽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선도적으로 해왔던 곳이 노들이었기 때문에 후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Q** 공부도 '장애인과 안경' 쪽으로 하고 계시고, 이후에 협동조합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A** 일단 석사 논문은 교수님한테 퇴짜를 맞았어요. 국내에 장애인과 안경, 시생활에 대해 연구된 게 없어요. 비장애인 시생활에 관련된 것은 많아요. 그쪽이 수도 많고 돈도 되기 때문에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석사 때는 하지 말고 박사 때 하라고 교수님이 그러셔서 일단 묵혀둔 것이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 활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검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치과는 장애인 치과가 있잖아요. 장애인 전용 안경원 같은 것을 해보고 싶어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도 당연히 접근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뇌병변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콘택트렌

즈를 착용해 줄 수가 없어요.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서 의료인만 할 수 있거든요. 활동보조인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렌즈를 끼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중증의 장애인들에게는 안경보다는 렌즈가 훨씬 편하고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예요. 또 시지각이라고 해서 보는 것과 뇌와의 관계, 이것은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관심 분야고, 교육 쪽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안경원에 가면 왠지 속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방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협동조합을 고민했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경원은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예하고 저도 공부를 좀 더 하려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 가게를 폐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은 마세요. 친구가 가게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Q**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경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경에 대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유익하다?

**A** 아, 『노들바람』을 보시는 안경사 분이 계실 수도, 하하하. 그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압축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안경 렌즈는 압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압축이 아니라 굴절률을 물어보세요. 중굴절, 고굴절, 초고굴절로 나누어지니, 이렇게만 물어봐도 안경원에서는 움찔할 거

2014년 12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요.  
두 번째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안경 그까짓 거 뭐 대충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그도 있었는데,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안경도 싼 것은 비지떡입니다. 사실 믿을 수 없으니까 싼 거 싼 거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것이 품질도 보장이 돼요. 어쨌든 10만 원을 받으면서 3만 원짜리 렌즈를 주진 않으니깐요. 적당한 가격은 적당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도 못 믿겠으면 수입 렌즈를 쓰세요. 그리고 포장지를 달라고 하세요. 다만 국산 렌즈보다 훨씬 비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저는 그래서 소비자도 그렇고, 안경사들도 교육을 하고 싶어요. 틈나는 대로 제가 후배 안경사들에게 물어보죠. “학교에서 압축 몇 번 한다고 배웠어?”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근데 왜 압축한다고 얘기해?” 그럼 사장이 시키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굳어져요. 나중에 본인이 사장이 되면 그렇게 또

하죠.  
사실은 동네 안경원을 이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동네 안경원 중에 잘 찾으면 괜찮은 곳이 있어요. 지금 길을 쪽에서 오셨으면 노원 쪽에도 좋은 곳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협동조합을 고민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되도 원가를 전부 공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적정가격을 책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면 서로가 부담 없는 것이죠. 권할 때 좋은 제품 권하고, 이번 달 돈이 없다 그러면 저렴한 걸로 권하고, 서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렇게 신뢰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결국은 다른 가게와 경쟁을 해야 해요.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가격인데, 그럼 계속 싸게 싸게를 지향하게 되죠. 그럼 제품의 질도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안경원 서비스가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 답은 협동조합인 거죠.

단풍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다. 압축렌즈가 세상에 없다니?! 렌즈는 압축하면 깨진단다. 그렇지, 그렇겠지. 딱 봐도 딱딱한 렌즈를 압축하면 깨질 것 같은데, 나는 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압축렌즈란 말은 일제시대부터 관용적으로

써오던 표현이란다. 굴절률에 대해 설명하기 복잡하니, 알아듣기 쉽게 몇 번 압축했다는 말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단풍이 만드는 안경 이야기’가 궁금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온다. 뭐, 그렇다는 말이다. 이왕 안경 맞출 거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추천한다. 뭐,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CMS후원인

- 강경완 강귀화 강남훈 강문형 강병완 강복원 강복현 강성운 강소영 강수해 강영미 강유선
- 강정자 강현옥 강희관 고경선 고명희 고승현 고아라 고은선 고재현 고명렬 공승룡
- 곽노근 광성자 구경민 구수준 구승기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민희 권병주 권영주
- 권용희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혁운 권혁은 김가경 김각균 김건욱 김건형 김경숙 김경혜
- 김관희 김광국 김광수 김근식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기호 김남수 김대희 김도경 김도현
- 김동은 김동진 김동호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문주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민림
- 김민아 김민영 김민지 김민호 김민희 김범식 김병모 김보연 김봉석 김부연 김상희 김선미
-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설민 김성미 김성현 김세영 김수경 김수영 김수현 김숙이 김승혜
- 김아람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옥 김연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환 김영희
- 김용남 김용성 김용욱 김용진 김우석 김원숙 김유리 김유미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 김익현 김재경 김재양 김재인 김재환 김재희 김정구 김정민 김정옥 김정하 김중윤 김중호
- 김종환 김 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에 김지은 김지환
- 김진규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창배 김창보 김태수 김태우 김태인 김푸른솔 김학일 김학호
- 김한민 김현령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희 김형배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호식 김홍희
- 김희정 김희찬 김희찬 나선영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민영 남지현 남호진 노미경 노상경
- 노상은 노현택 노혜련 동근숙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마미주 문건화 문경희 문명동
-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준 박경혜
- 박경화 박계선 박명숙 박미경 박민경 박민영 박보진 박보라 박상일 박서희 박선우 박선은
- 박성욱 박성희 박세영 박세진 박세호 박수진 박승하 박시백 박신영 박애경 박연희 박영민
- 박영환 박은국 박은정1 박은정2 박장곤 박장근 박재국 박정숙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 박종필 박종현 박주연 박준호 박지영 박진우 박찬양 박창숙 박철우 박초롱 박태민 박하순
- 박현민 박현정 박현희 박홍석 박희수 배경원 배덕민 배수자 배승현 배안나 배윤주 배진숙
- 배치너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재선 백진희 서기현 서남교 서매순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 서미진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은수 서정록 서주형 서호필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창기
- 성희옥 손동각 손성권 손은경 손인범 손주영 손준희 손희경 송기호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 송창국 신복순 신봉준 신석호 신수정1 신수정2 신숙희 신순영 신안수 신연실 신영근 신은희
- 신임식 신 진 신한나 신현훈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섭 심정구 안경모 안남희
- 안문필 안민희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인숙 안정애 안정은 안종녀 안향미
- 안희옥 양민화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윤근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여수진 염승영 엄재균
- 엄주철 여준민 연금순 오보람 오원주 오정자 오정희 오종환 오지은 오진아 옥 샘 우승명
- 우시우 원영진 유남숙 유문수 유보배 유애리 유영순 유정윤 유창재 유희정 윤기범 윤길중
- 윤동규 윤명섭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성근 윤승용 윤승원 윤 영 윤이용 윤정미
-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종술 윤준서 윤혜숙 윤호진 윤 희 이강수 이건희 이경덕 이경민
- 이경아 이경환1 이경환2 이경희 이광만 이광석 이광재 이금희 이기훈 이등은 이등진 이라나
- 이리나 이문희 이미리암 이미영 이미정 이민규 이범민 이비함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호
- 이수연 이순웅 이승민 이승범 이일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란 이영수 이용길 이원진
- 이유미 이유헌 이윤옥 이윤정 이윤지 이은숙 이은정1 이은정2 이은주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 이정실 이정은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실 이주오 이주옥 이준범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 이지혜 이지환 이진섭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진희 이찬미 이채린 이철우 이태곤 이한호
-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진 이형록 이호연 이호중 이희국 이효정 임광열 임나미 임덕심
- 임동근 임세라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춘학 임태중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명희
- 장미희 장상순 장선정 장성이 장옥란 장정환 장창완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대진
-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 옥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동식 정미란





## 후원방법 안내

### ① 후원계좌 및 물품 안내

#### · 노들장애인아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 ②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 방식과 직접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정민구 정병순 정상엽 정상욱 정선욱 정송이 정수연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균 정용일 정용훈 정우준 정운영 정유경 정유진 정은경 정은주 정익화 정재훈 정종권 정지영 정진영 정진이 정택용 정현강 정현경 정현숙 정혜림 정혜원 정희덕 조경애 조미정 조사람 조성진 조수안 조승근 조아라 조원일 조윤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용현 조정화 조향숙 조혁진 조현경 조혜민 좌동업 좌미경 주기종 주상연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주혜원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혜롬 진영욱 진영인 차무영 차순정 채이배 천성호 최경일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민경 최병진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영식 최영은 최우영 최윤경 최윤선 최은아 최은정 최 익 최재민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현진 최혜영 최호연 표미라 표은혜 표희철 하경남 하금철 하 울 하정자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선희 한성완 한승희 한양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 창 허효재 현영철 현정민 형장우 홍권호 홍도순 홍성미 홍성호 홍순대 홍순미 홍영희 홍은진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성운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혜진 황혜진 황희준

### 자동차 후원인

고명선 구자숙 권대상 김낙현(희망열차) 김명화 김미서 김선심 김용철 김정지현 김지연 낙산교회 남완승 류동훈 류승아 무 명 박경선 박윤기 박현규 삭개오교회 서금석 손환목 송영자 신동길 신 디 아름다운동행 안성희 양명희 오선실 윤종배 윤지형 이두혁 이수영 이한진 이현숙 이형욱(부개성누가의원) 주)엠알엠글로벌 차명수 책으로 여는 세상 최상희 최석순 포이에시스 한겨레21 한국유미코아 해피빈 허병권 황미향 황재숙

### <노들로 들어온 선물>

11월 | 김나라 뽕칼 50개  
 박누리 김포에서 직접 캔 고구마 한 상자  
 정우준 어머니 대봉 세 상자

12월 | THL&MRM 떡 세 상자

### \*노들20주년 후원물품 판매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니다』(홍은전 지음, 까치수업 펴냄, 10,000원)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박경석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0,000원)  
 잡곡(10,000원) / 20주년 “노들” 티셔츠(15,000원)  
 매실청(900ml, 20,000원) / 노들 20주년 사진집(20,000원)  
 양말(3,000원) / 신문지 재생연필(10자루, 3,000원)